

since 1996



한인뉴스

Vol. 172



2010 10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자녀의 평생음감을 좌우하는 첫 피아노.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피아노 선택은 정확한 음감으로 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음감으로 많은 전문가에게
사랑받는 정통 독일형 삼익피아노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 the First Piano —
SAMICK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H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대한 항공, 싱가포르 항공, 캐세이퍼시픽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 에어, 로얄 타이 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 항공, KLM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야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11월 30일 까지 유효**

GOH 호텔	객실종류	요금(원)	
		2인 1실	1인 1실
★★★ IBIS Slipi IBIS Mangga Dua Mercure Rekso	Standard Superior Superior	579,000	669,000
★★★★ Aston Marina Le Merdien Crowne Plaza Gran Melia	1 BedRoom	589,000	689,000
	Superior	609,000	739,000
	Deluxe Deluxe	619,000 669,000	759,000 859,000
★★★★★ Mulia Senayan Four Seasons Ritz Carlton Mega Kuningan Mandarin Oriental Jakarta	Superior	749,000	1,019,000
	Splendor	759,000	1,029,000
	Grand Room	789,000	1,089,000
	Superior	799,000	1,09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지역	호텔 * 리조트	풀빌라 * 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Kamuella Vilas Sminyak The Ahimsa
롬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 Beach Hotel Holyday Resort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 & Spa Qunci Villas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INDONESIA KOREA WEEK

Flying into the Future



INDONESIA KOREA WEEK

2010.10.11~10.16

2010.10.11 PM6:30~8:30

웰컴만찬 & 바틱-한복 패션쇼
2010 Indonesia-Korea Night
장소: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 볼룸

2010.10.13 PM6:30~8:30

락과 한국 전통 타악을 결합한 비언어극 공연
Beat
장소: Balai Kartini 극장

2010.10.12 PM 6:30

Indonesia-Korea Friendship Sharing Concert 2010
양국 최정상급 가수들의 Joint 공연
장 소 :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출연진 : SHINee, Son Ho-Young, Gita Gutawa

2010. 10. 12~17

마음을 담는 그릇 - 한국 도자기
도자기 전시회
장 소 : 간다리아 Mall, Atrium

2010.10.14~16

미래의 유비쿼터스 라이프 체험
AT&D Korea 홍보전시
장 소 : Pacific place 쇼핑몰 1층

2010.10.14 AM 9:00 ~ PM 6:00

JOB FESTIVAL _ 취업박람회 외(참가비 무료)
장 소 :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참가기업: Korindo, Samsung, Nobland 등 20개 기업
구직자 접수: Tel. 21-527-2612(HRD Korea)
Fax. 21-527-2613
E-mail. apple957@hanmail.net

2010.10.15 AM 9:00 ~ PM 5:00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배 자카르타 태권도 대회
태권도대회 및 시범단 공연
장 소 :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2010.10.15~16

양국 배드민턴 대표급 남녀 단식 및 복식 경기
배드민턴 친선경기
장 소 : Gedung Basket stadium

2010.10.16~17 PM 1:00

맛있는 한국음식 축제
TASTE OF KOREA FOOD FESTIVAL
장 소 : 간다리아 Mall

2010.10.11

Korea Film Festival

장소: 자카르타 블리츠메가플렉스 영화관(그랜드 인도네시아)

우수 한국 영화 상영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oreaindonesiaweek.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NDONESIA-KOREA WEEK

Flying into the Future (10.11-10.17)

구분	10.11(월)	10.12(화)	10.13(수)
문화 행사	공연		Indonesia-Korea Friendship Sharing Concert 2010 (스나얀 실내 테니스 경기장) 18:30~20:00
	대중 행사		BEAT(비트) 공연 (Balai Kartini 극장) 18:20~20:30
	주요 인사 행사	2010 Indonesia-Korea Night : WELCOME DINNER & Batik-Hanbok Fashion Show (리츠칼튼 그랜드볼룸) 18:30~20:30	
영화제	한국영화제 - (Blitzmegaplex 영화관-Grand Indonesia)		
경제 협력	포럼/세미나		
			한-인니 과학영재 및 녹색성장 교육 포럼
			한-인니 산업 기술협력 포럼 (Grand Hyatt Hotel) 10:00~13:00
전시회			
		도자기 전시회 - (간다리아 시티 몰 / 10.12일~10.17.일)	
이벤트			한-인니 디지털지식센터(DKC) TEIN3 개통식 (INDONESIA-KOREA Internet Plaza(DKC), Seminar room) 14:00~16:00
국제 교류		WFK (World Friends Korea) 사진전 (Sari pan Pacific Hotel) 13:00~18:30	

10.14(목)	10.15(금)	10.16(토)
	<p>태권도 대회 및 시범단 공연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09:00~17:00</p>	<p>KOREAN COOKING CONTEST (간다리아 시티 몰)</p>
	<p>배드민턴 친선경기 (Gedung Basket 경기장) 14:30~18:00</p>	
<p>한국영화제 - (Blitzmegaplex 영화관-Grand Indonesia)</p>		
<p>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직업교육 세미나 (리츠칼튼 호텔) 08:30~13:30</p>		
<p>(Agency of Assessment & Application of Technology)</p>		
<p>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설명회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14:00~16:00</p>		
<p>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박람회/한국어시험 접수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09:00~12:00 / 14:00~18:00</p>		
<p>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협정체결/ 자료기증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09:30~10:00</p>		
<p>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보건코너 설치 및 운영 (스나안 실내 테니스 경기장) 09:30~18:00</p>		
<p>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 세미나 (리츠칼튼 호텔) 13:30~17:10</p>		
<p>한-인니 미래 ICT 연구개발 인프라 협력 워크숍 (INDONESIA-KOREA Internet Plaza(DKC),</p>		
<p>AT&D Korea 홍보전시관 운영 (Pacific Place 쇼핑몰)</p>		
		<p>Taste of Korea Food Festival (간다리아 시티몰 / ~ 10.17,일) 13:00~18:30</p>
<p>도자기 전시회 - (간다리아 시티 몰 / 10.12일~10.17,일)</p>		
		<p>K Pop Contest (Grand Indonesia Fountain, West Wing, 3A Floor, Jakarta) 18:00~20:30</p>

중년이야기

어느덧 중년...
색소폰 소리로
나를 가꾼다.



김영민 편집위원

“애지중지 하고 있던 색소폰을 들고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가운데에서 ‘부산 갈매기’를 연주했어요. 물론 반주기 없어요. 익숙한 노래자락이 색소폰 소리를 타고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자 마치 이상한 것을 본 것 마냥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괜히 시작했다는 마음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무사히(?) 연주를 마치자 많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창피함과 행복감이 교차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스스로 대견스러운 마음에 흐뭇한 웃음이 납니다.”(이강용)

“인도네시아 교민 자녀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의 뽀뽀한 교육과 달리 이곳은 문화활동의 기회가 많아 상대적인 전인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악기 하나 정도 다루는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점이 직장일과 자녀 뒷바라지로 십 수년을 보낸 우리 같은 부모세대들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악기를 배우다면 자연스럽게 가족밴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니 즐거운 가족공동체를 이루는데도 좋고 해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보컬만 맡아 할 순 없잖아요.

수년을 배우다 보니 은퇴 후 연주를 통해 보람된 여생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강희중)

10여 년 전 서정적 음률의 전도사 ‘색소폰동호회(이하 색동회)’가 한인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크고 작은 행사에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하는 색소폰 동호회의 모습을 이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음악전공과는 거리가 멀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제인이기에 전문적인 음악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그들의 연주를 대하는 교민들의 반응은 작지 않다.

비단 색동회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외의 문화영역에 대한 향수 어린 움직임은 한인사회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인 경제적 풍요에 비해 문화생활의 부족으로 인해 빛은 문화향수와 갈증이 교차되었던 2000년 즈음으로 본다. 90년대 초반부터 신발, 봉제, 전자 등 제조업 기반 업종들의 수가 급속히 팽창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인사회의 규모 또한 커져 급기야는 현지 최대의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한인사회의 양적 규모 위에 문화라는 경제 외적인 분야를 엮은 격이다. 10여 년 전 즈음부터 인니에 첫발을 딛게 된 본국의 문화 전문인들과 또한 자생적인 교민 문화인들이 경제 분야 외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문화를 수요하는 교민 층이 매섭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색동회가 교민사회에 나타나게 된 계기도 이러한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색소폰동호회는 색소폰이 좋아 스승 없이 홀로 연습하며 홀로 즐겼던 천정훈 씨와 배정문 씨가 10여 년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후 1년이 안되어 음악인 고관복씨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음악전문학원인 ‘뮤직아카데미’를 열어 자연스럽게 고 원장으로부터 배움을 받으며 탄탄한 실력을 키워낼 수가 있었다. 이후 강희중, 위진복, 임채희, 양승진, 이상일, 최병우, 이강용 씨 등 회원수가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고관복 원장의 본국 귀국 후 새로운 귀인(?) 인 음악인 이일하 씨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오늘까지 활발한 모임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5년 전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디고 난 후 아직 현직에 있는 양승진(62)씨는 색소폰에 대해 ‘그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며 한편으론 아쉬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한창 젊었을 때 직장이라는 곳이 단체생활 그 자체였죠. 이른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곧바로 출근하고 매일 사무를

”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후 찾아온 경제적 성공의 문턱....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삶의 한 칸을 자리하기 시작했을때 비로소 색소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

별이듯 기본 직원 관리 및 잔업을 처리하다 보면 일러야 9시에 퇴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일과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일과 후 늦은 밤까지 어김없이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으니 하루의 일과 대부분이 직장의 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는 매월 월급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날이 곧 한 달에 한번 폭 쉴 수 있는 날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나름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힘들게 지내왔던 세월을 이겨내고 나서 조금의 여유가 삶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색소폰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경제적 성공의 문에 들어서기 시작한 동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여가를 즐기기 시작했고 과거에 없었던 스승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더욱



색소폰 연습에 정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까? 열심히 일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오늘 같은 날이 있게 한 원인이 되겠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한 아쉬움으로 남게 된 것을……

색동회 회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거의 비슷한 수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50대로서 중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들로 인해 청춘 시기를 꺾어내야 했던 애환과 아쉬움 들이 잔잔히 묻어 났다. 주로 마스크를 통해 60 청춘, 70 시작이라는 말들로 노령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 노인들에게 아직 꽃을 지우기엔 아쉬운 뉘앙스를 드러내며 아직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 헌신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음모론적 담론들이 같은 목적으로 가정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땀 흘리며 그들의 청춘을 보내야 했던 애환과 고통을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일까 색동회원들의 이야기 속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시간들을 취미 생활이란 형태로, 하지만 취미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느즈막이 과거의 보상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현재를 가꾸어 나가고 있어 보였다.



색동회 회원수는 현재 20명 내외다. 소실적 악기를 다뤄본 적이 있거나, 천성적인 음악적 소질의있고 없음에 따라 약간의 실력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회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이라는 눈빛의 교환과 꾸준한 ‘시간내기’로 현재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초창기 회원인 위진복 씨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색소폰을 시작했다. 그는 악기를 통해 남녀노소 상관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색소폰 애찬론였다. 위진복 씨는 “색동회 모임이 서로에게 민폐가 되는 일이 없고 절실한 우리들의 꿈을 이야기 하는 가치 생산의 장으로 삼기 위해 회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양승진씨와 박의태 씨는 취미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색소폰이야 말로 중년에 가장 어울리는 악기며 한국의

트로트와도 잘 맞는 재즈악기로서 고향생각의 애수를 불러 일으킨다고 한다. 그들은 매년 실력이 늘고 자신에 만족하며 매일 15시간씩 연습에 정진하고 있는 대니 정을 귀감으로 삼으며 생애 자신의 색소폰 라이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색소폰을 처음 접한 김주철 씨,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인해 지속하지 못 했지만 더 이상 나이가 들어 배우기 힘들어 지기 전에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1년 전부터 학원에 등록해 갈고 닦고 있는 중이다. 그는 “색동회 이외의 다른 동호회가 더 있어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정진하다 보면 부쩍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연습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또한 그는 테크닉에 따라 색소폰 실력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또한 연주 방법에 따라 같은 곡도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점을 색소폰의 매력으로 꼽으며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 색소폰 익히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모범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색동회의 이단아, 색동회의 하극상이 등장했다. 그는 색동회 회원 중 소실적에 음악을 해본 손꼽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음악을 하다 보니 고향에 온 느낌처럼 행복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그가 하극상이라 불리는 것은 회원들 중 가장 늦게 색소폰을 접했지만 학창시절 기타와 여러 악기를 다룬 밴드경험으로 인해 풍부한 음악적 감성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실력파이기 때문이다. 동료 회원들은 그의 음악적 감정 표현이 듣는 이를 젖어 들게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여성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해 회원들로부터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하다.

과거의 아쉬움만을 달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멀리 뛰기 위한 청춘 같은 활력의 움직임도 드러났다.

김덕규 씨는 매달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술 마시며 노는 무의미한 친목모임에서 벗어나 음악에 대해 또 한달 동안 같고 닦아온 색소폰 연주를 듣고 품평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연말에는 가족들 및 지인들을 초청해 백여 명의 관중이 자리한 제법 큰 연주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중 씨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문화를 사랑하고 또한 문화생산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무게를 두었다. 그는 “일과 경제적 성공만으로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없고 악기를 포함한 문화를 다루는 것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음을 말하며 그의 삶에서 역력히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력을 더욱 키워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들의 행동으로 불우한 이웃들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봉사의 길을 열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재에 들어가며

가까운 과거 한국에서는 중년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그저 좀더 불거져 나온 현상일 뿐 중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항상 진행형이었다. 무거운 경제적 책임감속에서 직면한 IMF상황하 중년가장들의 조기퇴직은 소위 “고개 숙인 남자”라는 사회적 신조어를 형성하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바 있고, 일부 계층 사람들의 한정된 이야기로 비쳐질 수 있지만 중년여성들의 탈선과 방향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서 중년의 문제가 한 가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살인적인 경쟁사회에서 좀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중년의 한국 남성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나친 자녀 교육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입시를 치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십 수년의 자식 뒷바라지를 하지만 결국 자녀를 떠나 보내고 남게 되는 공허하고 큰 빈 자리를 보며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중년의 한국 여성들, 한국사회 중년 그들에게 무엇이 그리 소중한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물음표만 가득한 게 현실이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한인사회의 역사에서 한인사회를 양적인 인니 최대의 외국인 사회로 급격한 팽창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의 대부분이 현재 평균 연령 50대의 중년의 길을 걷고 있는 교민들이다. 인도네시아라는 외국에 살고 있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한국인인 그들의 삶에서 한국중년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인사회의 경제적, 수적인 양적 증대의 바탕 위에 삶의 질을 보태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질적인 삶의 수요계층 상당수가 중년에 접어든 교민들이라는 점에서 중년의 애환을 조금은 가볍게 겪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한인뉴스는 이번 색동회 취재를 시작으로 몇 회에 걸쳐 중년들을 일상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공유해 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기독교 확산... 종교간 갈등 심화

기고: 신성철 / 데일리코리아 대표

이슬람세력에 위협을 느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32년 동안 '신질서'(Orde Baru)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을 통제해 왔다. 수하르토는 4천만명의 회원이 있는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흘라똘 울라마(NU)와 2위 무함마디아를 견제하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과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이찌미(ICIMI)라는 이슬람단체를 만들기도 할 만큼 이슬람세력의 확산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수하르토가 몰락한 1998년 이후 독재권력이 약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은 그동안 짓눌렸던 개성과 정체성을 한껏 발산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다양성과 지역마다 지닌 특별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앙집중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권력의 견제 없이 NU와 무함마디아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원리주의단체인 이슬람수호전선(FPI)도 활동을 늘려 폭력으로 이교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기독교도 확산 추세에 있다. 자카르타에 대형 교회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으며 호텔과 쇼핑몰 내 집회장소를 이용한 주일예배도 증가하고 있다. 케이블 TV에서는 복수의 채널이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 최고(最高) 예수상이 마나도에 세워지는 등 기독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도 인구센서스에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보다 현저히 적은 수치라는 것이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1960년대 복음주의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었던 뜨망궁 지역에는 현재 40개 이상의 교회가 들어섰다.

자바섬 중부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누그로호 목사도 1967년 30명에 불과했던 신도가 현재 4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슬람 교리를 내세운 현지 테러 단체들이 최근 몇년간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는 것. 맥주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복장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에 반기를 든 세대가 등장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불어닥친 기독교 열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이슬람교 일각에서는 기독교를 외세가 억지로 들여온 종교로 간주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은 최근 몇년간 이슬람 단체들이 신도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교회 수습 곳을 파손시키거나 폐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슬림, 타종교에 대한 반감 커져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타종교에 대한 반감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원리주의가 부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이슬람국립대학교(UIN) 산하 ‘이슬람과사회연구소(PPIM)’가 지난 10년간 매년 한 차례씩 전국적으로 다양한 그룹의 무슬림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감정을 묻는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17세 이상의 남녀 이슬람신자들로 대부분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였다.

무슬림들에게 집 주변에 교회나 타종교의 집회소가 들어설 경우를 물었을 때 참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1년에 40.5%에서 2010년에 57.8%로 상승했다.

무슬림들에게 학교에서 비무슬림교사가 자녀를 가르칠 경우를 물었을 때 참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에 33.5%에서 2008년에 21.4% 감소했다가 2010년에 27.6%로 상승했다.

UIN에서 이슬람역사를 강의하는 자잠 부르하누딘 교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사이에서 지난 10년 동안 종교적인 비판용 특히 비무슬림들의 집회소 건축에 대한 반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회연합(PGI)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간에 수도권에서만 교회와 기독교계 기관 11개 이상이 공격을 받거나 폐쇄당했다.

이어 그는 “비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클수록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신질서통치로 불리는 수하르토 독재가 막을 내린 후 원리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태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이슬람기숙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비무슬림에 대해 가르친다”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자잠 교수는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보다 관용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둑질한 사람의 손을 자르는 처벌에 찬성한다는 무슬림의 비율이 2001년에 28.9%에서 2008년에 31.4%로 증가했다.

교회 탄압 증가.. 정치권 뒷짐

지난 9월 벵카시에서 예배장소로 가던 기독교 신자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에게 칼로 배를 찔리고, 이 피해자를 도우려던 목사가 둔기로 머리를 맞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종교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소 피해자들이 속한 ‘바탁개신교회’측에 예배 중단을 경고해 온 FPI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다.

올해 초 이들은 바탁개신교회가 거주민들의 승인없이 무슬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세워졌다며 현지 당국측에 교회 폐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평소 벵카시를 포함한 기타지역에서 이슬람법 시행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불경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극단적으로 행동했으나 경찰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간 불화로 인한 사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우선 논의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베이연구소(LSI)의 도디 암바르디 이사는 정치인들은 빈곤, 외교 및 무역 같은 사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종교적 관용은 정당들이 취급하는 수백 가지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종교간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움이 깊으면 **뿐짝**으로 가자



인니문화연구회 회원 박경자 (시인)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 나는 뿐짝으로 향했다. 올여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유난히 더웠다고도 하고 기상변화를 예고하듯 아열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한다. 이곳 자카르타에 살면서도 한국의 사계절이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우기와 건기만을 보고 사는 이곳에서의 생활은 무미건조하고 때로 삭막하다. 자연에 대한, 계절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지면 어디든 가 떠나고 싶어진다. 뿐짝은 그런 내게 기꺼이 손 내밀어 주었고 그곳엔 인니 문화 탐방의 사공경 선생님이 계셨다. 나는 인니 문화연구회를 통하여 한 사람의 힘을 느꼈고 문화에 대한 애정과 꺼지지 않는 지적 호기심의 불씨를 얻는다.

보지 않고 무엇을 느끼며, 보지 않고 무엇을 말하겠는가. 산 전체를 덮고 있는 녹차 밭에서 나는 야생의 힘과 야생의 향기를 느낀다. 인솔하시는 사공경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그림 속으로의 초대”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19세기 인상파 화가의 화폭 속으로 빠져들 듯이 선생님의 말씀에 최면을 걸어 보기도 하며 산길을, 아니 차밭을 걸었다. 하늘과 구름과 연

두빛의 완벽한 조화라면 과장일까? 그 속에는 아름다움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었다. 고개만 들면 산이고 사는 곳의 몇 분 거리 안이면 쉽게 자연을 벗 할 수 있는 한국을 떠나온 지 어느새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차곡차곡 넣어둔 그리움들, 고국에 대하여 계절에 대하여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에 대하여 가슴 속에 자리한 서랍들을 열어본다. 차밭을 거닐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차밭의 여인들 또한 풍경이 된다. 어깨까지 드리운 커다란 모자를 쓰고 찻잎을 따는 아낙들과 미소를 나누었다. 문명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듯 빨갛게 바른 그녀들 입술조차 풍경이 된다. 그들의 삶에도 맑게 정화된 찻잎의 향기가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 여정지로 발길을 옮겼다.

뿐짝차밭 Wisata Agro에서 10분 뿐짝빠스로 올라가다보면 Melrimba Garden이 나온다. Melrimba Garden은 다양한 꽃들의 보고서 같았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난과 백합 등 국내종과 수입종의 각종 화초들



과 약용식물 뿐만 아니라 접목된 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비료와 약, 농기구들을 비롯해서 재배와 경작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다. 잘 꾸며진 정원을 돌아보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마치 가든파티에 초대라도 받은 듯 자연스레 식당을 찾았다. 그곳은 뽕짝 빠스의 한 리조트였다. 잔디 위에 삼삼오오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고, 두 다리를 쭉 뻗어도 좋을 정자도 있었다. 그야말로 오후의 만찬이었다. 정다운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나눈다. 차와 커피가 있고 바람은 살랑거린다. 마치 먼 길을 찾아온 가을처럼 바람이 속삭인다.

점심 식사 후 빠스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Taman Bunga Nusantara인 국립 꽃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자카르타를 벗어나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웠는데 눈앞에 화려한 광경이 펼쳐진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꽃들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원들이 꾸며져 있다. 16세기 마리앙뜨와네뜨를 떠올리게 하는 프랑스 정원과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서 우리는 한참을 머물렀다. 강인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다. 전체의 실루엣을 이루고 있는 원기둥 모양으로 손질된 나무는 프랑스의 화려함과 위엄이 느껴진다. 우리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며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정원 곳곳을 탐색하였다. 로맨틱한 색깔의 수상 정원과 자유의 상징 카우보이가 떠오르는 미국 정원, 웬지 낮설지 않는 일본 정원도 만끽하였다. 그리고 힌두 조각상이 있는 발리 정원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인도네시아임을 자각하기도 했다. 하루의 여정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다. 뽕짝을 내려오는 시간, '부까 뿌아사' 시간과 맞물려 교통체증이 기다렸다. 그러나 행복했다. 도시를 떠나 자연과 호흡하고 싶었던 시간, 차밭을 거닐고 수많은 꽃들과 나눈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인도네시아를 잘 모른다. 그러나 넓고 광활한 국토, 천연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님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무엇이 그들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이어왔는지 그리고 문화를 꽃피우는 것인지 알고 싶다.

오늘도 나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며 나의 땅 한국을 생각한다.

그리움이 깊으면, 나, 뽕짝으로 간다.

베니 장군

김문환 / 논설위원

지난 8월 13일 리아우 도서(Kepulauan Riau)주 빈탄(Bintan) 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7명의 말레이시아 선원을 억류하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소속 단속반원 3명이 오히려 2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며 협박하는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강제로 구인되자 양국간의 외교마찰로 비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쌍방은 충돌하는 과정에 그 해역이 서로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직후였다.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해당 주무부서인 외무부의 유약함을 질타하며, 심지어는 그 화살을 유도요노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기도 한다. 그러자 양국 외교협상팀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말레이시아 영토인 꼬따 끼나발루(Kota Kinabalu)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들어가는가 하면 9월 27일엔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에서 회동한 양국 외무장관이 이번 사건의 본질인 영유권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55마일 휴전선'처럼 국경을 딱 부러지게 구획하기가 모호한 관계로 주변국가와 수시로 영토분쟁을 겪어 왔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외교부서는 해양법 권위자들이 고위직으로 등용되어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는데 골몰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양법의 권위자로서 빠자자란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목따르 꾸수마앗마자(Mochtar Kusumaatmadja) 박사가 1980년대 내내 인도네시아 외교를 이끌어 온 점이나, 주서독 대사를 역임한 하심 잘랄(Hasyim Djalal) 교수가 이 분야의 전문외교관으로서 꾸준히 활약하여 온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버지니아대학에서 석, 박사학위를 마치고 외교관이 된 부친을 따라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그 역시 외교관으로 입문하여 최근까지 대통령 대변인으로 있다가 주미 대사로 부임한 디노 빠띠 잘랄(Dino Patti Djalal)이 바로 하심 교수의

자제분이다.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민들의 감정에 밀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성격상의 특성도 있겠지만 2백만 명에 달하는 합법적인 근로자 외 1백만 명에 이르는 불법 취업자까지 포함하여 총 3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현실직시와 더불어 양국간의 역사적인 배경도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매년 6만5천 척의 선박이 왕래하는 해양교통로의 요충인 말라카해협을 서로 공유하는 인접국가로서, 또는 인접국의 라이벌로서 수시로 애증을 반복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양국이 견원지간이 되어 가장 격렬하게 대결했던 사례는 1960년대 초 소위 “말레이시아 대결정책(Konfrontasi Malaysia)”이라고 부르는 국지전이였다.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모토를 내걸고 민족주의의 색채를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과시하였던 수까르노 정권은 영국의 주도로 말레이연방, 싱가포르, 영국령 보르네오(사바, 사라왁)을 한데 묶어 연방형태의 말레이시아가 탄생하자 이를 영국 제국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정면대결을 불사하면서 양국이 교전상태에까지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 대결정책에서 제2차대전 이후의 주요 승전국인 영국이 후원자로 버티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군사적으로 대적한다는 것이 승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인도네시아 국군은 다분히 수까르노 대통령의 원맨쇼에 의해 끌려간, 내키지 않는 전쟁이었다. 실제로 후방교란작전을

별인다고 사라왁 지역에 침투시킨 인도네시아 공수요원들이 대다수 희생되거나 생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고 엄청나게 소요되는 전비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인도네시아 군부는 이 전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제쳐놓고 극비로 물밑접촉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전략사령관의 직책에 있던 수하르또 장군은 정보, 공작업무를 전담할 ‘OPSUS(Operasi Khusus)’를 결성하여 알리 무르또뽀(Ali Moertopo) 중령을 비롯하여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소령, 람리(Ramly) 중령, 수겐 자룻(Sugeng Djarot) 중령 등의 실무진을 가동시켜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하기 시작한다. 초대 수상을 역임한 수만 사흐리르의 양자로 말레이시아로 망명한 데스 알위(Des Alwi)는 1965년 초 마침 방콕을 방문 중인 압두르 라작(Abdur Razak)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의 호텔방에서 베니 소령과의 첫 만남을 극비로 주선한다. 이 자리에서 말레이시아는 진심으로 국교정상화를 원하며 협상이 타결되면 말레이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포로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작 장관은 베니와의 첫 만남에 대해 “베니 같은 군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다. 여러분들도 베니의 10분의 1만 닮으십시오.”라고 그의 부하들에게 극찬할 정도로 베니의 협상력은 탁월하였다. 다음 비밀회담을 10월 첫 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기로 일정을 잡은 얼마 후 9.30 쿠데타가 발발하여 아야니 육참총장, 하르요노 장군 등 6명의 육군 최고수뇌부가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하자 이 작전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이 공백기간 동안에도 베니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면서 계속 본국과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하르또 장군이 실권을 잡은 시점인 1965년 12월이 되어서야 협상이 재개되어 1966년 8월 11일자로 ‘자카르타 협정(Jakarta Accord)’을 체결하여 말레이시아와 국교를 회복하였다.

이 후 1971년 제2대 주한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베니 장군은 재임중인 1973년에 대사급으로 양국 외교관계가 승격되는데 실세 외교관으로서 맹활약을 펼치다가 1974년 1월 본국으로 귀임한 이후 줄곧 인도네시아 권력 상층부에 포진하면서 오늘날 한인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숨은 공로자였음을 70~80년대 이곳에 진출한 교민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필자가 학부에



재학 중일 때 한남동에 소재하던 인도네시아 영사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여 베니 총영사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다소 과묵하고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가 이로부터 1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실권자로 급부상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때였다. 정치적 뉘앙스가 풍기는 세무조사에 걸려 침몰하기 직전의 한국기업을 구제하고 폐수처리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정부와 야합한 경쟁업체의 뒷에 걸려 생존의 기로에 선 한국회사를 보호하여 준 은인이 바로 베니 장군이었으며, 2차 오일 쇼크를 당하여 정부 수뇌부가 전전공공할 때 국무총리 사절단이 나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게 만들어 준 흑기사는 누구였던가? 미국 등 선진국 오일 메이저들이 군침을 흘렸던 서부 마두라 유전은 누구에 의해 한국인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가?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에서 만든 전차상륙함(LST) 6척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할 수 있었던가? 40여명의 인도네시아 각료 중 자신의 사무실에 한국산 전통자개 탁자를 배치하여 드러내 놓고 친한과임을 자처하던 각료가 언제 또 있었던가?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분쟁에서 굴욕적이라며 성토를 당하며 입장이 난처해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50년 전 적국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칭송까지 들어가며 양국간의 분쟁을 거뜰히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베니 장군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된다.

반등 한국어 클럽

Homey



사랑해요 한글 사랑해요 한국문화



반등에는 한글을 좋아하고, 한국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Homey Korean Language Club Bandung”이다.

이 클럽은 2006년에 한국인 한 가정의 수고로 소수의 대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클럽으로 현재 정회원만 약 190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매주 한 번씩 반등의 sadang serang에 있는 한 중고등학교 교실 두 칸을 빌려 일주일에 5일 동안 돌아가며 한국어를 배운다. 그동안 이 클럽은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신들이 매번 공부하러 올 때마다 5000 루피아씩을 낸 것을 모아 학교 교실을 자체적으로 임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것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이들은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김치, 김밥, 잡채, 불고기 만들기 등을 한국인 지도자와 함께 한국어 수업 중간 중간에 진행하여 한국어 공부에만 집중한 피곤한 눈과 마음을 달래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클럽의 가장 흥미로운 행사는 1년에 두 번씩 진행되는 한국어 노래자랑이다. 지난 8월 7일 네 번째로 열린 노래자랑은 반등의 현지 식당 중의 하나인 Bale Kambang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반등 한인회 김재용 회장 이용화 홍보 위원장, 그리고 박용석 교육/문화위원장 등 한인회 임원이 방문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김 회장은 반등한인회 이름으로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한국어 노래자랑에서는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현지 학생들도 있었으며,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가요들이 춤과 함께 그대로 재현되기도 했다. 그리고 3개월여 동안 익힌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시간도 있어서 흥미를 더해 주었다. 한편 이 클럽을 지도봉사하는 한국인 박갈렙 선생님은 이날 그동안 한국어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한국어시험 성적이 우수한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그리고 반등 한인업체 이만성 사장 김수현 사장





Homey Korean Language Club Bandung

등이 인형, 라면, 이불 등을 선물로 기증하여 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이 클럽의 회원들 중 일부는 이미 재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게 되었다. 차후 다른 회원들도 계속 그런 정신교육과 역사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익힌 한국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인들과 함께 체육 활동, 봉사 활동 및 여러 가지 친교 활동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반동 한인회장은 이들이 반동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김밥 만들기 행사를 반동 한인회 건물 안에서 하도록 허락하여 60여명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도 하였다.

이 클럽의 구성원들은 현지 대학생이거나 갓 대학을 졸업한 이들로서 한 번 새로운 예비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3백명에서 4백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곤 한다. 지도봉사자 박선생님에 의하면,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도할 보조 교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며, 이들의 문화 행사에 동참하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다. 관심 있는 교민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1. The Plaza Office Tower 로비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나서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된다.
2. 30층에 위치한 영사과,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층전 보다 넓혔다.
3. 영사과 복도 맞은 편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
4. 2013년 완공될 예정인 대사관 신청사 모습.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층전과 동일)



이용 안내

○ 일반절차

- 1층 로비 왼편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교환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발행 신분증인 KITAS 또는 KITAP
 - 인도네시아 경찰청 발행 외국인 등록 관련 신고증 (SKLD)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SIM)
 - 대한민국 여권
 -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설치된 출입문 센서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용 대사관(30층) 도착
 -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과 신분증 교환

○ 예외절차

- <신분증이 여권만 있고, 영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여권을 복사하고 출입증 발급

- <여권도 없고, 신분증이 전혀 없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대사관 영사과에 통화, 영사과 직원이 내려와서 30층으로 안내

○ 기타사항

-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 Rp.150,000을 변상해야 하므로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출입증을 반드시 1층 안내데스크에 반납 요망.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전 안내

주소:

The Plaza Office Tower, Unit E 20th Floor(20층)
Jl. MH. Thamrin No. 28-30, Jakarta 10350

전화: 021) 2992-1900, 2992-2100, 2992-2101

팩스: 021) 2992-2102(KOICA), 2992-2103(KJE)

이용절차:

- 건물로 들어오신 후 안내원에게 방문기관 및 층수(KOICA, 20층)를 이야기하고 신분증을 맡긴후 출입증을 받습니다.
- 총 3개의 건물중 LOW 라고 적혀있는 건물로 향하여 출입증을 출입 센서에 대신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 백화점과 The plaza building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종교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에게서 보이는 문화현상” 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문화가 생겨나고, 사람이 생을 영위하는 곳에 반드시 종교가 함께 하는 것이니, 종교로서 문화를 탐색할 수 있고 문화로 종교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특히 한국의 종교사를 들여다보면 문화가 보이고, 문화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온통 종교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종교와 문화, 문화와 종교, 즉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담론도 될 것이다. 곧 문화의 의미도 환기해보면서,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특수한 영역인 종교문화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볼 때 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정의는 “문화는 인간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다. 즉 문화는 “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총체” 이므로 문화의 중심에 반드시 종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문화의 실제

고 김수현 추기경 선종 추모 미사(자카르타 성모샘 성당 2009.2.20)

글: 인재 손인식(서예가, 시인)

이 땅 인도네시아에 언제부터 한국인의 종교가 하나의 문화로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을까? 우선 선명한 기록은 1970년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 총회로부터 인도네시아 선교를 명받고 이듬해인 1971년 선교사로 부임한 고 서만수 연합교회 목사를 들 수 있겠다. 그로부터 어언 40여 년의 역사를 인도네시아에 쌓은 한국기독교 개신교계는 한편으로는 동포들을 안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지인 기독교도들을 이끌면서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등 지방 도시를 아울러 그 숫자가 약 30여 개의 교회로 확대되었

으며, 총 3천 500여 신도들이 교회와 더불어 타국의 삶을 지혜롭게 꾸며나가고 있다.

이들 교회는 다시 현지인들의 정신적 안식처나 삶을 개선하는 중심체로서 현지교회를 개척하거나 지원한다. 종족별 종교지도자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종족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숫자가 수백 곳을 헤아리니 한국적 종교문화의 혜택을 입는 현지인 성도들의 숫자는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일인 교회 역할을 하는 400여 선교사들의 활동까지 감안해볼 때 이 땅의 한국인들에 의한 기독교 개신교 문화는 매우 적극적이고 실



연합교회 설립 36주년, 제2회 인도네시아 기체복각유자 축원을 위한 찬양제(2008.9.7)



故 서만수 목사

천적으로 그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고 하겠다.

학자들은 역사와 현상의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한국의 문화는 조화의 문화다.”라고 역설한다. 이는 한 민족의 역사가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하늘의 이치를 법으로 하여 거기에서 벗어남이 없이 모두, 고루 어우러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문화에 조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문화에는 조화의 강도가 훨씬 높고 그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한국문화의 어느 것을 보아도 조화의 면이 역력하거나 역사에서 보면 한때 그것이 깨어졌던 때라 하더라도 곧 회복을 위한 노력도 처에서 터져 나와 조화를 이어오곤 했던 것이다.

조화가 강점인 한국문화는 근대에 들어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양문화에 얼핏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문제를 풀어나가며 고도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들을 속속 배출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나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며, 나름대로 어렵고 이질적인 환경과 토속문화를 이겨내고 성공을 일구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종교문화도 우리문화의 특징인 조화를 바탕 삼아 매우 성공적인 정착과 변천, 그리고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교민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다.

이러한 전 세계의 소속 교회가 일체감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인 천주교로서 자카르타 성요셉성당을 통해 발생하는 종교 문화를 살펴보겠다. 자카르타 한인성당은 1978년 재인니 한인 가톨릭 교우회가 모임을 가진 것이 그 시작이다. 조선 중엽 성리학 또는 토속신앙과도 잘 조화한 학문으로서 한국에 전래된, 한국천주교의 시작이 그렇듯 외부의 선교 활동이 없이 공동체를 타국 땅에서 세우는 일을 재현해낸 것이다. 신부도 수녀도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평신도들이 주일이면 가정집에 모여 공소예절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한국인 603 세대, 등록 교우 천오백 사십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톨릭 나름의 문화를 펼치고 있는 토대인 것이다. 천주교는 최근에는 수라바야, 반둥, 찌카랑, 땅그랑 등 4 곳에 소속 공동체로서 공소를 설립하고 내외적으로 평화와 희망을 함께 가꾸어나가고 있다.

문헌에 드러나는 종교의 의미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외경의 감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의례 등의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전반이 종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혼란한 시대에는 궁극적 관심이자 신념체계로서 통합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며 사회를 리드한다.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생리요 특성으로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장점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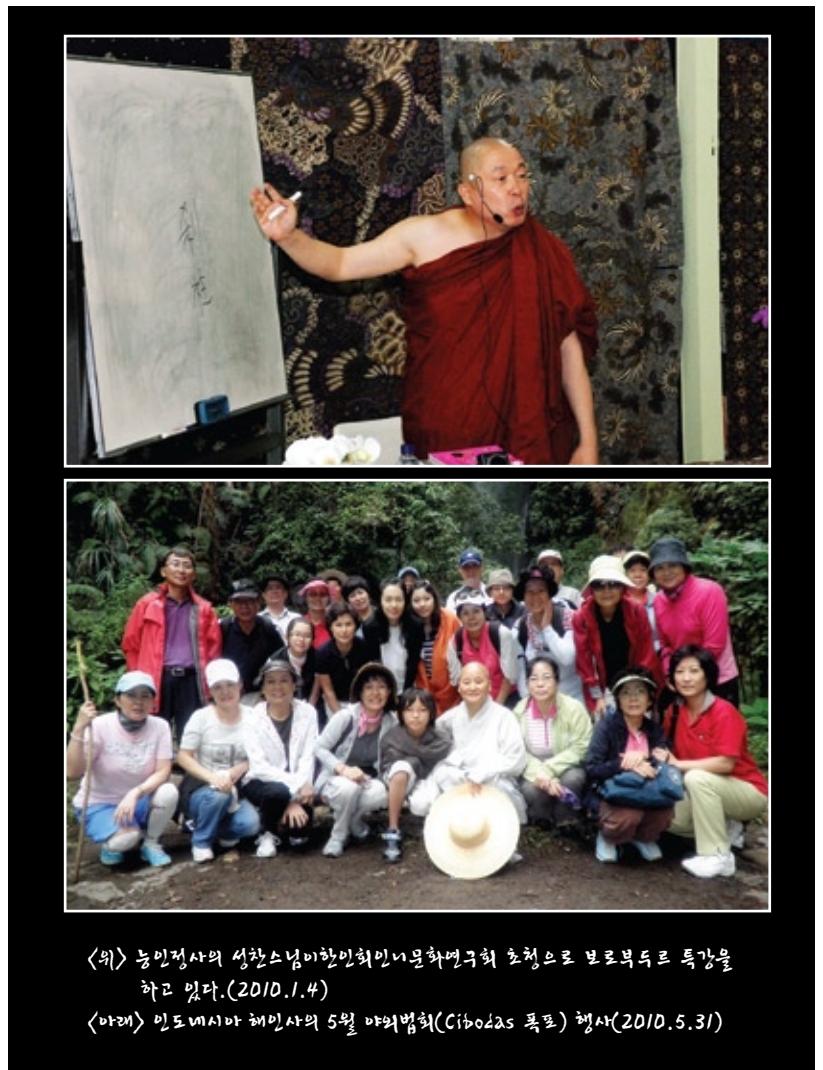
계에 드러나게 한 원동력으로서의 깨달음도, 한국종교가 깨달음의 방법을 두고 그 경지에 이르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온 덕임을 부정할 수 없다.

깨달음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 불교를 살펴보자. 인도네시아 한국인 불교 공동체들 또한 1991년 1월 불자들이 모여 자카르타에서 가정법회를 개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불자들의 그 작은 모임은 오늘날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의 전신이자 조계종 능인정사, 조계종 고려정사, 법연종 법연원 등 네 곳의 불교 공동체 700여 신도의 모체이다.

인도네시아 불교는 7세기경부터 약 300여 년을 융성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힌두교나 이슬람의 유입에 따라 150여 년 전부터는 그 명맥마저 끊긴 것인데, 40여 년 전 대만으로부터 유입된 대승불교가 승맥을 이은데 이어 한국계 불교가 나름의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인사 인도네시아는 소속 불교 공동체로서 이미 수라바야에 해인사 포교원을 열었고, 또 다시 반둥에도 포교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면서 또한 다 종교 국가이다. 다만 타국적 종교 공동체를 국가 법적으로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점도 없지는 않지만, 한국적 종교 즉, 기독교로서 천주교의 성당과 개신교의 교회들, 그리고 불교공동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현지의 동일 종교 공동체들과 연합하면서 매우 실천적으로 종교문화를 키워가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타국의 생활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고난을 이기고 힘을 얻으며, 현지 사회를 향하여는 끊임없는 자선과 다양한 사회개선 사업을 펼치는 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내적 깊이 보다는 외적 넓이를 선호하는 화려한 칼라 시대를 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전자공학의 의존도가 높은 시대가



<위> 능인정사의 성찬스님비한인회인문학연구회 초청으로 보르부두르 특강을 하고 있다.(2010.1.4)

<아래> 인도네시아 해인사의 5월 야외법회(Cibodas 폭포) 행사(2010.5.31)

기도 하다. 이는 곧 순일한 종교의 진리와 가르침이 절대 필요한 시대임의 의미이기도 한다. 종교학자 밀러는 종교에 있어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종교는 반드시 넓이와 깊이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우리는 앞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가 얼마나 종교적인가와 한국인들이 얼마나 조화를 추구하는 민족인가를 살펴보았다. 곧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종교문화를 통해서 실천과 조화, 희망을 배울 수 있었다. 부디 각자가 믿는 무한한 종교의 힘을 입어 이 땅의 한국인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빈다.

끝으로 그동안 6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문화의 실제(저서문화, 언어문화, 미디어문화, 자선문화, 교육문화, 종교문화)를 탐구해왔던 본 문화칼럼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마감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문화가 한 권의 책으로 묶일 때도 되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아쉬움이 크다. 다행이 쌓인 것이 많고 다시 기억해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인니 한인사회에 역사요, 기록되어야 올곧게 역사가 된다는 뜻을 지닌 분들이 많으므로 언젠가 <인니 한인사회문화사> 한 권이 탄생될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꽃들에게 물어봐



유춘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딸이 떡꼬치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사진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내일이란다. 뭐 그전에 지나가는 말처럼 하긴 했었을 터이지만 워낙 정신이 없는지라 금방 잊는다.

애 셋을 키우다보면 정줄(흔히 말하는 정신줄)을 놓는 일이 빈번하다.

“뭘 떡꼬치?”

“바자르 데이에 팔 거야.”

말인즉 학교에서 오픈 하우스와 바자르 데이를 하는데, 반별로 누가 얼마를 많이 팔았는지를 결산해서 나중에 순위를 정하는 것이란다. 1등한 반은 인증 장 같은 걸 받는 가보다. 교장 선생님이 호명하면 일등한 팀이 나가서 악수하고, 상장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단다.

암튼 승부욕 하나는. 달나라에 가서도 토끼랑 방아 찧기 시합을 할 인간이다. 하지만 둘째는 별말이 없었다.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해달란다.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 엄마가 해주는 것 아무거나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다.

떡꼬치를 하려면 튀기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쉬운 떡볶이 같은 걸 하면 오죽 좋으냐고 했더니 그건 벌써 다른 애가 하기로 했다.

“그니까, 니가 먼저 하겠다고 하지?”

“그래도 불고기 보단 낫잖아. 그건 돈이 더 들잖아.”

어려하시겠소?! 암튼 나는 졸지 간에 떡꼬치를 만들어야 했다. 각각 20인 분 분량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나처럼 요리 철학이 없는, ‘그때그때 달라요’ 형 레시피를 사용하는 사람에겐 더 더욱 그러 하다.

뭘 해도 지 맘대로 하려는 주장이 강한 큰애와 전형적인 타협형 인간이 작은 애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순간 든다. 흥익인간 정신이 살짝 부족한 큰애는 종종 버겁다. 반면 작은 애는 웬지 만만해서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하는 편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작은 애가 편하다. 삼신할머니가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편해야지 하면서 보내 준 것 같다.

휴가 기간에 서울에 잠시 다녀왔다. 가기 전에 큰 애의 성화에 뮤지컬티켓을 예매 했다. 반드시 사전 예매,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예매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해서 그 시간까지 맞췄다. 사이니의 광팬인 큰애는 꼭 본인이 추종해마지 않는 <온유>가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 날짜의 뮤지컬을 보겠다고 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공연티켓을 구매했다. 그날이 아니면 그 사랑해마지 않는 온유의 공연을 볼 수 없단다.

큰 애가 뮤지컬 공연을 보는 동안 동생과 커피를 마시며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곳에서 한 때 내가 좋아했던 배우 안재욱을 봤다. 사이니의 <온유>와 더불어 캐스팅이 된 그는 본인의 공연이 없는 날 관객의 반응을 보려고 왔는지 매니저쯤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뮤지컬 홀의 로비를 지나갔다. 마치 왕자처럼. 하지만 세월이 그러한 탓인지 누구도 그에게 달려가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었다. 잊혀진 왕자라고나 할까. 그래도 여전히 왕자의 포스는 한줄기 남아 있었다. 동생이랑 나는 아줌마도 괜찮다면 우리라도 가서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어쩐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만 뒀다. 암튼 살짝 슬펐던 건 뜨는 <온유> 팬들이 쌀을 기부하는 바람에 그 큰 로비에 쌀가마니가 쌓여 있고, 불우 이웃을 돕는다고 기부를 하니 마니 하는데, 한 때는 <온유> 버금가는 스타였던 그는 야밤에 뮤지컬 로비를 확보해도 모두 소담보듯이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뮤지컬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 거의 여자였다. 대한민국 아이돌 가수는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물론 거기에 내 딸도 적극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니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듯 하며 웃기만 했다.

큰 애는 일찍이 내가 본적이 결코 없었던 꽃처럼 환한 웃음을 만면에 가득 채우고 걸어왔다. 그냥 주변이 상방사방 분위기로 가는 걸 보면 일단은 사기충전인 셈이다.

“잘 봤냐, 딸?” “어, 엄마 찼어찼어!”

무슨 찢지도 아니고, 자반도 아니고 뭐가 찢다는 건지. 온유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챙긴 딸의 기분은 이미 은하철도 999를 탔다. 그리 좋을까? 나는 입이 귀에 걸린 딸을 떨거니 보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일단 연예기획자는 성공을 한 셈이다. 소녀들의 맘을 확 잡는 아이들을 더블 캐스팅 했으니 말아먹을 일은 없는 것이다. 더불어 왕년의 스타 안 재욱도 옆허가고.(덕분에 그가 부디 부활하길!)

큰 애를 앞세우고 올림픽공원을 걸었다. 하늘엔 모처럼 별이 종종 떠 있고, 성미 급한 풀벌레소리도 들리는 밤이라 산책하기엔 좋은 날이었다. 이젠 택시만 타고 집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딸애도 덩달아 달려갔다. 일순 황당해지는 건 동생과 나. 이젠 텔레비전에서 본 듯한 장면인 걸? 하면서 마주 보는 순간 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텔레비전에서 비명을 지르며 스타를 쫓아가는 애들을 보며 혀를 찼는데 그게 완전히 나의 일이 됐다.

자식 키우면서 앞서가는 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실종된(?) 딸을 만나려면 그 자리에서 그 대로 서 있는 것이 원칙! 해서 야밤에 꿈쩍없이 '그대로 멈춰라' 를 했다. 그놈의 온유는 언제 나타나려는지 그의 벤을 포위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코빼기도 보여주질 않는다. 더 기가 막힌 건 내 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놓으신 일본 아줌마들까지 가세를 했으니 야밤에 딸을 찾을 길은 요원한 셈이다. 아저씨들도 일본 아줌마들이 저러는 걸알까? 암튼 이래저래 심란한 밤이었다.

큰 애는 결국 온유의 뒷쪽지만 찍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얼굴 가득한 충만감이 라니.....사실 나는 내가 낳지도 않은 녀석(?)을 너무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며 사진을 모으고, 신간 앨범이 나오면 한국의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공수하는 요즘의 이 상황을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다.

이 상태를 도대체 어디에게 물어 봐야 하는 걸까? 올림픽 공원에 뜬 달에게 물어보나, 달빛에 유난히 뽀얗게 핀 옥잠화에게 물어보나?

너는 왜 하고 많은 색중에 그 색으로 피니? 라고 물어보면 꽃은 아마도 '난 원래 그런 색이야' 라고 할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 딸도 그렇게 말하니까.

하긴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일본 아줌마에 비하면 딸의 열광은 애교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비행기 타고 왕년에 좋아한 X-JAPAN 공연을 보러간다면 방 빼라고 할라나? 아마도 그것보다는 지구가 두 쪽으로 썩 갈라지는 것을 바라는 쪽이 빠를 것이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당선자 초청 낭송회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네



초대합니다

일자 :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4시부터

장소 : 미정

주관 : 한인회 인도네시아 문화연구회

프로그램 : 1부 낭송회 / 2부 시상식 / 3부 다과

복장 : 인도네시아 전통정장(바틱 외)

후원 :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한인뉴스, 한나프레스

한인회 인도네시아 문화연구회(회장 사공경)는 인니와 한국의 문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문화와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공모전을 시행했습니다.

공모전의 당선자들과 명사들을 초청하여 시상식과 시낭송회를 개최하려하오니 많은 교민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사공경 (08161909976)

박정자 (0815.1070.3065)

양태화

OKTA 차세대협의회 회장 / Bosung Indonesia 전무



김영민 편집위원

이태백 그리고 한 단계 더 진화(?)한 삼태백, 88만원 세대, NG(No Generation: 졸업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 등 젊은 세대에 대한 어두운 신조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 청년들의 제자리 찾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 오래다.

기성세대로부터 ‘도전정신이 없다’, ‘응석받이로 살아왔으니……’ 등 갖가지 부정적인 언사를 듣지만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며 힘없이 하소연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현재 처한 상황이 단지 젊은 세대만의 의욕 부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맨몸을 불살라 성공을 일궈내 ‘고진감래’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의 전형적인 성공모델들도 그들의 세대에만

가능했던 것이었을 뿐 지금의 청년세대에게는 도전의 기회마저 얻기 힘든 현실과 기성세대들의 높은 벽 틈바구니에서 현실성을 상실한 고사성어로만 들릴 뿐이다.

월드옥타 차세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양태화 씨는 겹겹이 장막이 쳐 있는 힘든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다소 이기적인 젊은 층의 사고가 역설적이지만 생존을 위한 그들의 현실상황임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월드’ 세대라 불리기도 하는 젊은 세대들의 삶 속엔 이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깊이 각인돼 있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장이 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 결국 자신의 이익과 거리가 먼 무조건적인 친목모임엔 자연스럽게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차세대협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자기계발’을 위한 청년들의 경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2006년부터 차세대협의회 주최의 ‘차세대무역스쿨’이 격년제로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열리지만 청년들의 호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했다. 무역스쿨 기간 동안 각계 교민 전문가 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직접 무역 및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상공인을 주류로 이뤄져 있는 인니 한인사회의 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장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들이 이런 작은 무역스쿨에 환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매회 3대 1이라는 높은 입학경쟁률과 회를 거듭할 수록 기존의 청년 자영업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급증해 급기야 대학생의 참여를 제한하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의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회 무역스쿨을 통해 50여명씩 쏟아지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성명 양태화
 출생년도/출생지 1975년/서울
 회사 Bosung Indonesia
 업종 Packaging
 직책 전무
 전화 +62-21-5935-1001
 이메일 antonio@bosung.co.id
 가족사항 기혼/부모, 처, 아들 2
 종교 천주교
 흡연/주량 흡연, 소주 1병
 혈액형 A형
 좋아하는 운동 골프, 볼링
 존경하는 인물 아버지
 좌우명 성실위보(성실하면 보답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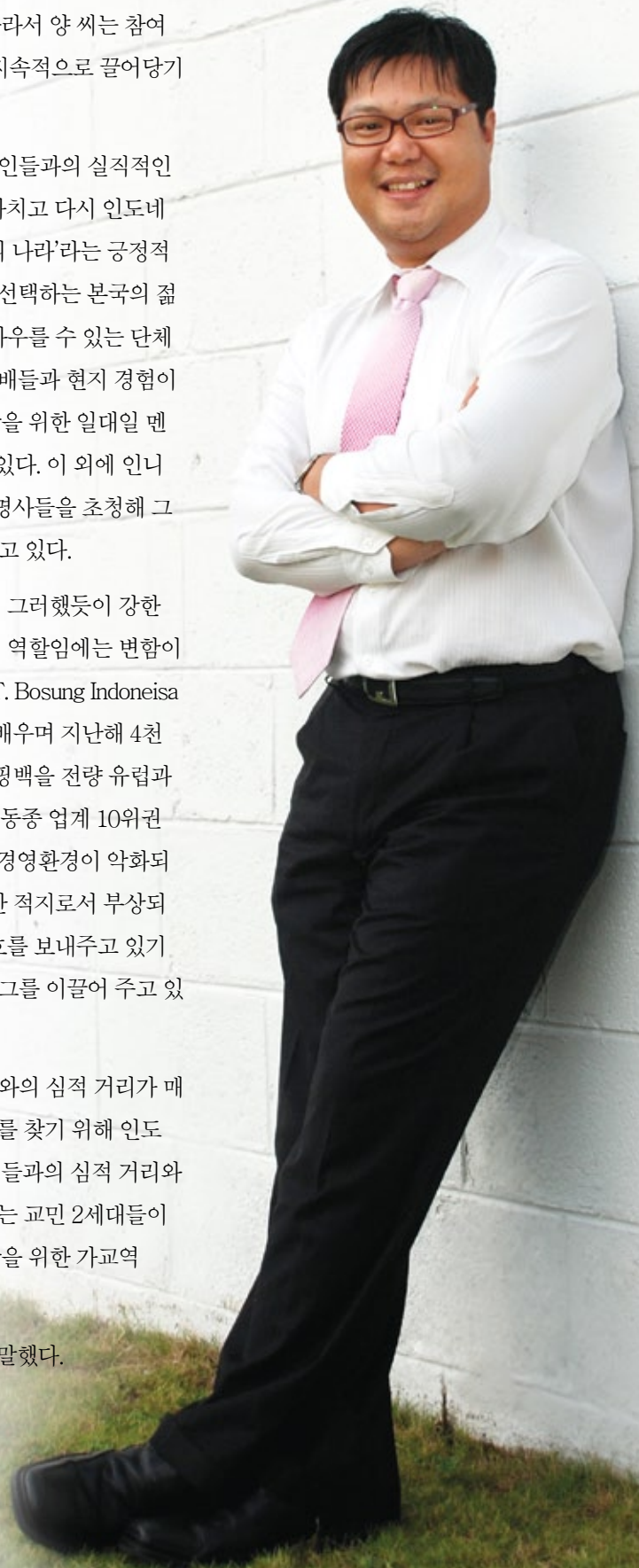
정보를 교류하자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따라서 양 씨는 참여도를 높이고 결성 모임의 연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고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그는 인도네시아 각 영역의 차세대 협의회 및 화교 상공인들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고등교육까지의 모든 학업을 마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귀환하고 있는 교민자녀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기회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부상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신 인도네시아를 선택하는 본국의 젊은이들의 수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한인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의 현실적 활용성 문제도 고민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배들과 현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후견인제도)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외에 인니 진출 초기의 힘든 과정을 거쳐 성공신화를 이끌어 낸 한인사회 명사들을 초청해 그들이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해 듣는 시간을 연3회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양태화 씨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이 그러했듯이 강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일구어 가는 것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역할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친이 일으켜 세운 패키징 업체인 PT. Bosung Indoneisa에 전무로 재직하면서 부친의 경영 노하우 등 회사경영 전반을 배우며 지난해 4천만 달러라는 연매출을 기록했다. 2년 전부터는 ‘토미 힐피거’ 쇼핑백을 전량 유럽과 일본에 연간 5백만장 정도 수출하는 등 향후 5년 내 인도네시아 동종 업계 10위권 진출이라는 목표의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섬유 봉제, 신발, 전자 등 글로벌 생산 적지로서 부상되고 있듯 외부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요인이 그의 도전에 푸른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가 가장 존경하는 부친이 큰 버팀목이 되어 부족한 그를 이끌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양태화 씨는 전형적인 교민 2세로서 기성세대인 부모님 세대와의 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소통의 문제 또한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발을 디디고 있는 청년들에게서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들과의 심적 거리와 소통의 부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교민 2세대들이 세심한 자리매김과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통한 친구 세대간 화합을 위한 가교역할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좌우명으로 성실하면 답이 온다는 ‘성실위보’를 말했다. 그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기본 덕목의 자세에 항상 성실한 자신의 모습을 더할 때 그것을 기초로 대인관계의 신뢰가 비로소 이룩되지 않냐고 반문한 3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한인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6. Indonesia-Korea Week 일정표
- 8. 중년이야기_어느덧 중년... 색소폰 소리로 나를 가꾼다
- 12. 시사종교 인도네시아 기독교 확산... 종교간 갈등 심화
- 14. 인니문화탐방_그리움이 깊으면 뽕짜리로 가자
- 16. 차 한잔 마시며 베니 장군
- 18. 반동클럽 HOMEY
- 20. 인니 한인사회 문화탐구_종교문화의 실제
- 24. 유춘강의 긍정 칼럼 꽃들에게 물어봐
- 26. 릴레이인터뷰_양태화 OKTA 차세대협의회 회장
- 30. 한인사회 소식

- 고 서만수 목사 기념관 개관
- 마음 안에 기념관 하나 지으며
-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회 개소
- 롯데마트, 현지 대학에 장학금 지급
- 한국기업인들, JKIS 에 장학금 전달
- KOWIN 인니지부, 강현구 교수 초청 비전 특강 개최
- U! 한국학과 한국 문화의 날 개최해요
- 김문환 논설위원의 인니현대사 강의 열려
- 한인회, 대사관, 해피센터에 후원금 전달
- 조호신 씨, 한인상공회의소 신임 사무차장으로 선임
- 한-인니 FTA 이렇게 활용하세요
- 한국인 대상 자동차 절도범 주의
- KOICA 신규단원 입국
-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대표단 후원의 밤 열려
- JKIS 발전협의회 발대식 개최
- 모국방문 연수를 다녀와서
- 초등학교 소식
- 그리운 조국, 그리운 정
- 한 족장의 위대한 선택



Contents

- 46. 10월 공지사항
- 51. 생활정보
- 56. 김효영 원장의 건강 칼럼 **Kacang Panjang**
- 58. 행복한 아이의 비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 62.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아픈파이 먼파이**
- 65. 인도네시아법을 해설 **민사소송법2**
- 69.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 70. 컴퓨터 이야기 7
- 72. 한국부인회 It's Korea 두번째 책자 펴내
- 73. 와칭코리아 아로슬라블 세계정책 포럼과 상생의 한-러 관계 모색
- 74.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 76. BOOKS





故 서만수 목사 기념관 개관

- 40여년 선교활동 및 한인사회 역사 생생히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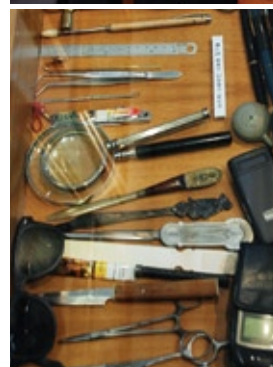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에는 어제(9월 27일) 지난해 소친한 故 서만수 목사의 소친 1주년을 맞이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40여 년 파란만장했던 개인사와 교육철학, 신앙을 담아낸 '서만수 목사 기념관'을 개관했다.

故 서만수 목사는 1939년 평양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문학을 전공했으나 70년 봄 목사안수를 받고 이듬해 인니 토라자족 선교와 오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부인 정소라 선교사와 함께 78년 오지촌락 개척에 착수해 지난해 9월 16일 소친 직전까지 약 400여 현지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고 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UKIM)설립하는 종교와 교육에 끊임없는 열정을 쏟았다. 92년도엔 세계인명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개관식은 고인의 부인인 정소라 선교사를 비롯해 수백여명의 연합교회 신도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예배를 시작으로 기념관 현판식과 사진전 관람, 만찬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연합교회 내 교육관에 자리잡게 된 기념관은 서 목사의 소탈했던 심성을 말하듯 15평 남짓 작고 아담하게 꾸며졌지만 초대 한인 교회의 인니 개척사를 넘어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증거들로 채워졌다.

소년기부터 고인과 평생을 함께했던 사진기 및 사무집기에서부터 예배 시 걸쳤던 예복, 끊임없는 고학의 산물인 논문들과 대통령 표창 및 많은 선교회 상패들 그리고 문학인이기도 했던 그가 서정주



시인의 서평을 받고 그가 손수 펴낸 시집인 '동개야와 신문집 '남방에 피는 꽃' 등은 서 목사의 삶이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또한 문학도 시기에 수집했던 일제기의 신문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술라웨시 토라자 지역을 시작으로

고 서만수목사의 기념관을 보고

마음 안에 기념관 하나 지으며

누가, 어떤 삶이 기념관을 남길 수 있을까? 천문학적 인 부를 축적한 사람일까?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권력 자일까? 본인이 원하면 되는 것일까? 후인들이 일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일까?

기념관! 모범적이고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의 몫일 것이다. 업적을 산처럼 남긴 사람의 유산일 것이다. 마침내 그가 쌓은 덕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마르지 않게 하는 사람일 것이다.

고 서만수 목사의 40년 인도네시아 선교활동을 기념하고 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탄생되었다. 그가 시봉하던 연합교회 안에 소담하게 꾸며졌지만 실로의 미가 큰 한국인의 상징 하나가 자카르타에 생겨난 셈이다. 그가 생전에 성직자로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는 물론 국내의 교단까지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와 교단에서 수차에 걸쳐 그의 공로를 기린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생생한 선교 기록으로서 1994년 출간된 수필집 『남방에 심는 노래』가 있고, 시집 『동개야』, 『남방에 피는 꽃』, 『가르치며 증거하며 섬기며』 등이 연이어 발간되었으며, 이번 기념관 개관에 즈음해서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가 출간되었으니 고인에 대한 설명이나 업적에 대한 어설픈 찬사는 그저贅언이 될 뿐이다.

생전의 그는 그냥 한 사람의 목회자,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이웃이었다. 더없이 따뜻했고 상황



에 따라서는 매우 준엄한 분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성직자로서 한결 같았던 그는 묵묵함으로 몸소 가르침을 행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이제 그가 생을 다하고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며 타국 땅, 그가 꿈을 펼친 인도네시아에 뼈를 묻은 지 일 년여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은 많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도 많다. 자카르타연합교회가 그렇고 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신학대학과 인도네시아 각지의 교회들이 그렇다. 이제 기념관이 더해졌으니 우리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를 음미하고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곧 그가 베풀고 쌓은 덕으로 인해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을 훈훈하게 하고 빛나게 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서만수 목사의 기념관을 돌아보면 그가 생전에 얼마나 치밀하고 일관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다. 그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폭넓은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하고 계획했는지 잘 드러난다. 또한 역사를 중요시 여긴 성직자요 선교사로서 한결같은 실천의 성과가 어땠는지 생생하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라면, 생전의 그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생전의 그와 가까이 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다면, 바로 그런 이유로 꼭 한 번 그의 기념관을 조용히 체감해볼 일이다.

<인재 손인식/서예가>

펼쳤던 선교활동의 역사를 담은 수십여 점의 사진 및 신문 스크랩 등은 서 목사 개인의 역사를 넘어 한인사회 역사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인정될 만 했다.

3개월여를 기념관 준비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수고했다고 말한 이광수 장로는 “개인 기념관을 세울 수 있는 교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한인사회의 생생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충분하기에 기념관은 항상 개방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회 개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 이하 연맹) 인도네시아 지회가 지난 9월 6일 자카르타에서 개소식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한인동포단합 목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소식에는 박창달 연맹 총재 및 김호영 대사, 한인회, 부인회 및 교민 단체 관계자 등 약 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창달 총재는 박동희 연맹 인니 지회장 및 부회장 3인, 고문 3인, 자문위원 2인을 임명하고 “교민사회가 한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니 초대 연맹 지회장으로 임명된 박동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인동포단합 최우선, 좌익세력용납 불가, 교민사회 및 차세대 정체성 확립, 한국인 자부심 선도, 현지사회 봉사”라는 지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소식 준비과정 중 교민들과 만나면서 느껴왔던 연맹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 교민들의 동참과 고견을 적극 수용해 지회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신임고문으로 선임된 조용준 고문은 자유총연맹이 더 이상 반공단체로서의 과거 이미지가 아닌 명백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단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맹의 인니지회 개소가 2012년 선거부터 시작되는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될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교민들이 적지 않았다. 신



박동희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용준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고문(왼쪽)과 박동희 지회장이 연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오른쪽)

기업 한인회 수석부회장도 정치단체로서의 연맹의 인니 지회는 ‘불가’하다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교민화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로서 운영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대만의 장제스 총통의 주도로 조직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한국 지부로 시작되었다.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의 제정’으로 1964년 한국반공연맹으로 개편되면서 공법인화되었다. 이후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박창달 전 의원이 총재로 있다.



롯데마트, 현지 대학에 장학금 지급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롯데마트는 롯데그룹내 롯데 장학 재단을 통해 즉자에 위치한 가자마다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I대학의 한국어과 및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였으며, 또한 도서 1,000권씩을 각 대학에 곧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월28일 가자마다 대학에서의 장학금 수여식 이외에 29일 UI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롯데마트 문영표 대표, 대사관의 김도형 노무관 및 이근제, 정동현 롯데장학 재단 이사가 참석하여 대학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 장학금을 받게되어 매우 기쁘

다, 우리들의 장래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문영표 대표는 " 올해 4개의 새로운 롯데마트 점포를 오픈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려 나갈것임에 따라, "이러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있고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2008년11월에 마크로 cash & carry 의 100% 지분을 인수, 2010년 5월에 19개점 상호명을 롯데마트 홀세일로 변경하였고, 2010년 8월5일에 해외 100호점이며, 현지 리테일 1호점을 간다리아 시티몰에 오픈한 롯데마트는, 2010년 10월에 2번째 점포를 라뚜 플라자에 오픈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인들, JIKS에 장학금전달

지난 9월 28일 한국에서 온 기업인들이 정성을 모아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 장학금에 써달라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장학금을 기부한 기업인들은 이성문(청갑교역) 사장, 유정규(고려생명보험) 사장, 문무선(한국검정) 사장, 문창신(대원케미칼)사장, 최창환(창성금속)사장이며 코린도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차 출장은 길에 정무웅 한국학교 재단부이사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강근수 교수의 특강 장면과 배정옥 KOWIN 인니 지부 담당관의 인사말 장면

구체적인 비전만이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 KOWIN 인니지부, 강근수 교수 초청 비전 특강 개최

지 또한 경영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강을 시작한 강 교수는 과거의 한국과 세계각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전을 이룩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꿈을 실현하게 된 그들의 계기는 그들이 작성한 작은 낙서 한 장에서 비롯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비전이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야만이 그 결과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목표 설정은 결과 자체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꿈을 꾀 보기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삶의 비전을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또박 또박 적고 매일 수십 회에 걸쳐 쓰기를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통계적으로 3% 만이 시대의 리더에 들고 또한 10%만이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대의 리더들 모두가 '마법의 문장'으로 불리는 직접 자신이 쓴 구체적인 비전(Written Specific Vision)을 통해 성공의 문턱을 넘었다고 역설했다.

강교수는 또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비저너리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생각 ▲전략계획서 작성 및 달성 시한 정함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의 행복함 상기 ▲자신의 능력 신뢰 ▲주위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 등을 갖고 닦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이하 KOWIN) 인니 지부(담당관 배정옥)는 14년간 세계 각지 2천여회의 강연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는 강근수 교수를 초청, '차세대 리더 양성과 비전스쿨 특강'을 주제로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2일 자카르타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대사관, 한인회 및 한인상공회의소의 후원으로 개최된 강교수의 비전스쿨 특강엔 약 백여 명이 넘는 교민들의 참석해 풍성한 삶의 의미 찾기에 시종 진지했다.

특강을 주최한 배정옥 KOWIN 인니 지부 담당관은 주옥 같은 강연을 통해 마음속 비전과 꿈을 한아름 안고 귀가 할 수 있었으면 하며, 자신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UI 한국학과, 한국문화의 날 개최해요

UI 한국학과 재학생들의 한국사랑을 선보이게 되는 ‘한국문화의 날’ 그 세번째 이야기가 오는 11월 6일 UI 캠퍼스 내 Balairung 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개최된 두번째 문화의 날 행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약 2천여명의 관중이 모여들어 한국문화 대박의 꿈을 실현한 바 있는 학생들은 올해 좀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학과 학생들의 모임인 ‘화랑’은 사물놀이, 부채춤, 태권도 시범, 자체 오디션 우승자 공연 및 특별히 준비한 공연들과 행사장 외의 바자행사를 통해 좀더 입체적으로 한국문화를 보여줄 것임을 밝혔다.





KOREAN CULTURE DAY



2010 COLORFUL KOREA

NOVEMBER, 6th 2010 AT BALAIRUNG UI DEPOK (9 AM-5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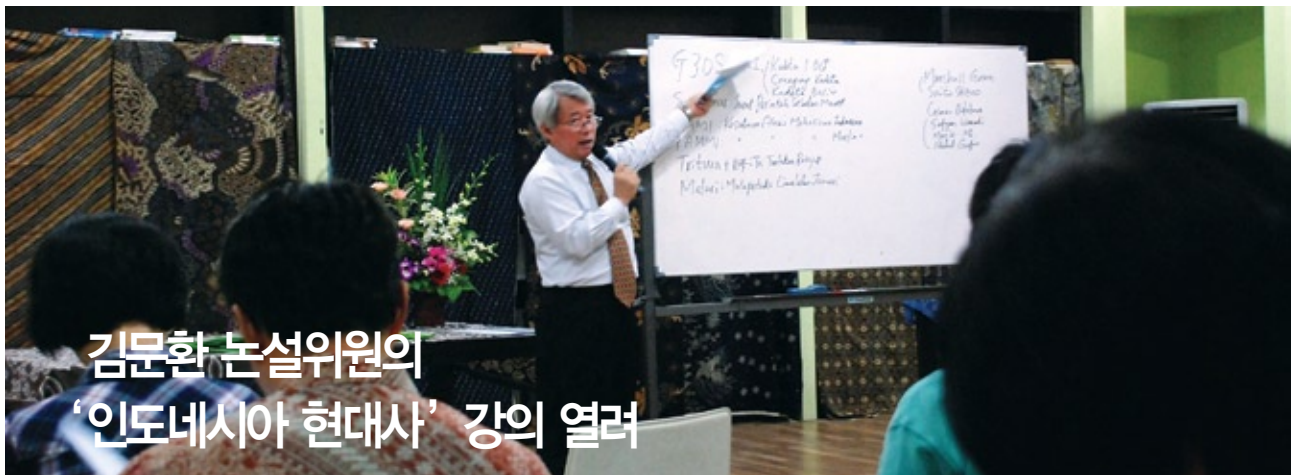
www.facebook.com/koreancultureday
 CP: Wina 0857-14995631 (Audition), Alhan 0818-03130690(Bazaar), Emmanuel 0856-97705725(Publication)

SAMULNORI
BUCHAE CHUM
KOICA'S TAEKWONDO
 KCD AUDITION WINNER PERFORMANCE
 SPECIAL PERFORMANCE
 FROM KOREAN MAJOR STUDENTS
BAZAAR
 and many more..

Ticket : Rp. 10.000
On the spot : Rp. 15.000

Fakultas Ilmu Pengetahuan Budaya
 Universitas Indonesia



김문환 논설위원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강의 열려

인도네시아 문화연구회(회장 사공경)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25일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을 초청, ‘굴곡의 현대사’ 중 제2편인 ‘수카르노와 영부인’과 제3편 ‘수하르토 정권의 영욕과 한국기업진출사’를 주제로 열린강좌를 개최했다.

김문환 논설위원은 ‘수카르노와 영부인’ 강의에서 350여 년간 이어진 식민통치 말미에 국가이념인 뽀짜실라를 제안하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독립을 이루고 인도네시아를 건국하게 된 수카르노는, 이 과정에서 그와 결혼한 11명의 부인들에 의해 그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901년 동부자바주 블리따르에서 교사였던 아버지와 발리 출신 어머니 사이의 외아들로 출생한 수카르노는 이후 수라바야의 민족주의 정치가인 쟈크로아미노토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딸인 시띠 우따리와 정략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 1921년 THB재학 중 잉깃 가르나시와의 재혼, 졸업 후 독립운동으로 투옥 중 1938년 수마트라에서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 전 대통령 등 2남3녀를 낳아 키운 국모로 불리는 파트마와띠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여성예찬론자인 수카르노는 대통령이 된 후 4번째 부인으로 하르띠니를 맞이하고 1958년 일본-인니 청구권 협상이 타결된 후 일본 방문에서 살리꾸 마이사와 이듬해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는 등 거의 1년에 한 명씩 부인을 맞았다. 그의 7번째 부인이며 수카르노의 임종을 지켜본 일본인인 테위(닷나 사리 테위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일본 관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논설위원은 ‘수하르토 정권의 영욕과 한국기업 진출사’의 강의에서 ‘9.30사태(1965년)’를 한국기업의 인니 진출의 결정적 계기로, 반일감정이 폭발한 ‘말라리 (Malali)사건

(1974년)’을 한국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가속화된 시점으로 설명했다.

김 논설위원은 9.30사태(1965년)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육군 수뇌부의 납치살해 및 라디오 방송국 장악을 통한 국가의 좌경화 쿠데타가 수하르토 육군소장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압 되자 수카르노 정권하의 친북정책으로 인해 어려웠던 한국 기업의 인니 진출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9.30사태를 계기로 1년 후 한-인니 정식외교관계과 수립(1966년)되고 이어 한국남방개발(코데코), 동화기업(코린도) 등 목재산업을 필두로 한국 기업의 인니 진출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일본의 인니 경제 잠식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1974년 다나카 일본 수상외 인니 방문을 계기로 촉발된 대규모 대학생 시위인 말라리(Malari)사태의 수습을 위해 수하르토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귀국하게 된 베니 무르다니 장군(당시 주한인니대사관 대사)의 인니 입성이 일본 기업들에 의해 진출하지 못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비로소 진출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친한·지한 인사로 알려진 베니 장군은 1983년에 통합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수하르토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기업들은 80년대 말 섬유·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진출했고 이어 90년대 LG전자,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코 등 자본집약산업에까지 진출하면서, 오늘날 한인사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외국인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한인기업 진출사 연보

연도	진출사	상세 내용	인도네시아
1964.11	KOTRA 지사 설립		
1965.10월 초	김 억 입국	기관원 출신으로 KOTRA 지원	
1966.8	한-인니 영사관계 수립		
1966.12	총영사관 개설	이창희 총영사	
1967.1.10			인도네시아 외국투자법 제정
1967.5	오세윤 입국(서울통신 주재원, 모발 수집)	가발 및 인력수출이 60년대 말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	
1967.7.1	김만수	해외유공자 자격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67.9	김명진, 김덕림, 박대주, 최용운 입국	김명진은 김만수의 장남	
1967.9.12	정부 경제사절단 인니 방문/이병순(단장, 산업은행 부총재), 한준석(청와대 경제비서관), 정원훈(외환은행 전무)	산림개발에 관한 기본계약 체결 - 남부 깔리만탄 27만 헥타르	
1967.10.31			인도네시아-중국 국교 단절
1967.3.27			수하르토 대통령 정식 취임/MPRS
1968.3	한국남방개발 현지법인설립	(KODECO, Korea Development Co.,Ltd) - 해외 직접투자 1호 기업	
1968.5	신교환 입국(신흥양행 주재원으로 부임)		
1968.10	한국외환은행 인니사무소 개설		
1968.11.25	한남무역 지사 설립	관립 무역회사	
1969	장달수 입국	한일시멘트 주재원	
1969.4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1) 시작
1970	경남교역, 동화기업(코린도 전신)	산림개발업 진출-제2호, 제3호	
1970.6	삼환기업	건설업 진출	
1970.6.21			수카르노 대통령 사망
1971.2~74.1			주한 인니 총영사 베니 무르다니 대령
1971.9.16	장평화 한국입국	인니 입국 최초의 한국인인 장윤원의 딸	
1973.3	미원 인도네시아 설립		
1973.	건설업체 진출	신한기공(4월), 대림산업(6월), 경남기업(9월), 현대건설(12월)	
1973	한,니흥업 산림개발업체 진출		
1973.9	김좌겸 초대 대사		
1974			1월 - Malari 사건 4월- 사르위 예디 위보위 초대 주한대사 부임 4월- 포르투갈, 쿠데타 발발, 동티모르
1974.10월	현대건설 자고라위 고속도로 착공		
1975.11.17	양칠성(꼬마루딘) 외, 가룟영웅모지에 이장		
1976	아주임업/신흥목재 진출		
1980.2			미국적 화교들에게 시민권 취득 허용 법령 통과
1981	KOEDCO Energy 사 설립	한국 최초 해외 유전 개발사	
1982			베니 무르다니 장군, 국군사령관(Pangab)에 취임
1983.8	한국가스공사 LNG 구매계약 체결	연간 230만 톤	
1985	신발업 진출	Eagle, 코린도 그룹	
1989	CJ 인도네시아 설립	바이오, 사료	
1990.8.8			인니-중국 국교 재개
1990	컨테이너 제조업(코린도, KODECO)		
1990	LG Electronics Indonesia 설립		
1991.8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설립		
1994.11	김영삼 대통령 APEC 참석(보고르 대통령)		
1996.2			인니 국민차(Mobil National) 프로젝트 발표 - 시행사: Humpuss, Timor(세피아)
1997			7월: 태국 외환위기, 10월 루피아 폭락 Rp4,000/USD(1998년 1월 Rp17,000/USD까지 폭락)



한인회·대사관, 해피센터에 후원금 전달

한인회와 대사관은 지난 7월 모임의 자리에서 조금씩 모은 성금(476만 루피아, 100달러)을 10월 4일 해피센터에서 밥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금 목사에게 전달했다.



**조호신 씨, 한인상공회의소
신임 사무차장으로 선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KOCHAM)가 새로운 사무차장으로 조호신씨를 선임했다. 올해 대대적인 조직 확대를 통해 인니 한인사회 상공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KOCHAM은 사무국 강화를 통해 더욱더 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도우미로 나설 방침이다. 현재 KOCHAM 사무국엔 사무총장에 김육찬, 사무차장에 이주한, 조호신, 그리고 간사에 남지화 씨가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서는 외교통상부와 코트라, 지식경제부와 및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무역인들 및 한인 상공인들에 대해 한국과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200여명의 참석한 설명회는 김호영 대사의 인사말에 이어 FTA 체결현황 및 협정 주요내용(기획재정부), FTA 협정 이행 상황 및 개선 방안(외교통상부), FTA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관세청), FTA 체결국 수출입 통관절차(인니 관세청)등에 대한 연사들의 설명이 이어졌고 간단한 휴식을 한 후 이득수 대사관 관세

관의 FTA 애로해소 및 질의 회신 사례와 코트라 복덕규 차장의 FTA 유망 품목 및 대 한국 교역확대 전략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다.

김호영 대사는 설명회 계기로 한-인니 양국이 FTA 간소화를 통해 수출이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참석자가 중간 중간 빠져 나가는 등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내용을 소화하려다 보니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로 느껴졌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 현지인은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자동차 절도범 주의

한국인 소유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훔친 현지인절도범이 기승을 부려 한인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위조한 주민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절도범은 최근 1년새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자동차만 3대를 훔쳤으며,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절도범의 범행수법은 동일하다. 절도범은 누구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얻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인에게 SMS를 보내 면접을 신청한다.

사용 중인 브라우저가 해당 이미지의 표시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인 정보는 한국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서 얻었다며 한국인이 신뢰할만한 한국계 대기업을 내세운다.



그는 면접할 때 모 한국인 회사에 10년 가량 일했고 한국인이 귀국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구직 사유를 말한다.

10년 넘게 한국인과 일을 했지만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어를 잘해서 한국어는 잘 모르고, 무사고 경력과 한국인이 주로 다니는 식당과 슈퍼마켓 등을 잘 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급여는 200만 루피아 정도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인상착의가 깔끔하고 정중하고 말도 호감과 신뢰감이 들게 한다.

인터뷰할 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며 채용을 승낙하고 차량열쇠를 넘기는 순간 차량을 갖고 달아나는 수법을 써왔다.

구인자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점과 한국인에게 접근하는 점에서 절도를 돕는 주변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운전수 채용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확한 신원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전수를 고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면접시에 추천 경로와 구인하는 한국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소개한 사람이나 전에 고용했던 한국인이 Mrs. Kim 이나 Mr. Lee라고 애매하게 둘러대는 경우에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 코리아 제공>



KOICA 신규 단원 입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신규 봉사단원 13명이 지난 13일 입국했다.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따르면 2010년 3차 신규 단원들은 다음날 김효영 대사를 예방했다. 이날 김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봉사단원으로서 주재국 문화를 존중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봉사단원들은 자카르타, 수카부미, 서부갈리만탄, 남부술라웨시, 중부자바 등지에 파견돼 국위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KOICA는 이번 신규단원을 포함해 총 94명의 봉사단원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파견했다.



동티모르 유소년축구 대표단 후원의 밤 열려



영화 '맨발의 꿈'의 실제 주인공인 김신환 동티모르 유소년 대표팀 감독(왼쪽)과 인도네시아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태회장

지난 9월 17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갈릴리 홀에서 영화 "맨발의 꿈" 시사회를 겸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150여명의 교민들과 이 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동티모르 유소년축구 대표단과 김신환 감독이 초청되어 깊은 감동이 시간이었다.

이날 시사회에 앞서 김신환 감독과 선수단은 짜인 축구공을 나누어주면서 교민들과 기념촬영했다. 이 자리에서 축구단의 인도네시아후원회장인 김상태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제대회 6회 우승의 주역인 김신환 감독과 이번 행사에 후원해 준 기업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신환 감독은 그간 김상태 회장의 계속된 후원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인니동포의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는 시작되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과 함께 화면 속을 가득 메운 감독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한편, 축구단은 동남아 12개국 유소년 축구대회 예선전에 참가차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교민세계와 한나프레스는 후원회와 함께 훈련경비를 마련하고자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대표단 후원의 밤'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대표단 후원에 밤 행사에는 ROTC동우회, 해병동우회, 고려대교우회, 연세대교우회, 연합교회, 한인성당, 재인니한인신발협회, 자유총연맹인니지회, PT 시나르, 보성그룹, QCN, 한인회 신기업수석부회장 금일봉 등 영화 입장권 수익금을 합하여 4천 300달러가 모금되었다. 또한 신발협회는 운동화, 축구화를 보내주어 힘을 보탤다. 한편 이번 10일간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대표단의 자카르타 훈련경비는 14,100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신환 감독과 김상태 인니후원회 회장

'축구감독'과 후원회장이 지난 10일 자카르타 남부 T 식당에서 마주했다. 한 사람은 월드컵 기간에 개봉하는 축구 영화 '맨발의 꿈'의 실제 주인공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대표팀의 김신환 감독(53)이고 또 한사람은 김감독의 축구열정에 빠진 자카르타 거주 김상태 회장이다.

'맨발의 꿈'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전직 축구 선수 김 감독이 동티모르까지 흘러갔다 그곳에서 유소년 축구팀을 창설, 2004년 1년 만에 국제유소년대회 우승을 이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영화와 축구 얘기 그리고 후원회장을 이야기를 같이 하다보니 식당 영업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났다. 하지만 '국가대표'에 이어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재연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쉬지 않고 유소년축구단을 후원하고 있는 김상태 회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인도네시아 후원연락처 김상태 0811-139407> <한나프레스 제공>



JIKS 발전협의회 발대식 개최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가 또 한번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9월 23일(목) ‘JIKS 발전 협의회’의 발대식이 열렸다. 글로벌 리더 양성 및 JIKS 발전 초석 마련, 학교 구성원 만족도 증진을 통한 학교 이미지 개선, 교민 사회의 교육 복지 허브 구성을 목표로 하여 발족된 “JIKS 발전 협의회”는 전 교사의 참여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창의·실력양성·만족·리더십·봉사·활동·열정·교류’를 혁신 키워드로, ‘이상적 교육과정 편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교단 선진화’, ‘JIKS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명예의 전당’ 등을 전략과제로 하고 있다. JIKS는 발전회의 구체적인 전략과제는 학교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0학년도 2학기에 JIKS에 부임하신 선종복 교장선생님을 협의회의 회장으로, 임성일 초등 교감 선생님과 이찬욱 선생님을 부회장으로 하여 협의회가 운영되며, 지금까지 중등과 초등이 별도로 운영된 것과는 달리, 협의회 아래에서 일원화된 조직으로 초등 교사와 중등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협의회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 중등 교사 한정보 선생님은 “그간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



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초등과 중등이 일원화된 소통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 반갑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JIKS 발전 협의회’는 ‘기획 홍보팀’, ‘교육·학력 신장팀’, ‘시스템·여건 복지팀’, ‘진로·진학팀’, ‘인성지도팀’, ‘영어교육팀’의 6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팀의 팀장은 초등교사 1명과 중등교사 1명이 동시 수행하게 되어 보다 민주적인 협의회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JIKS발전 협의회는 이번 9월 2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여 9월 29일 학교 운영 위원회의 보고를 거치고, 10월 22일 교민 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발전 협의회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JIKS의 새로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게 될 JIKS 발전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 2010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 연수기 |

모국방문 연수를 다녀와서

9학년 노진수

모국 방문연수를 위한 귀국 길. 기대감에 나는 들떠 있었다. 더군다나 11년만의 고국 방문이라 내 나라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게 될까 설레는 마음에, 최근 며칠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몸은 피곤해 있었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3시경에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비행기가 인천 공항에 착륙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여기가 한국인가? 한국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7월 11일 숙소로 가는 중, 간판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정신이 사나을 정도로 낯선 풍경이었다. 간판 숲을 지나 내가 머물게 될 경희 대학교 외국인 기숙사를 찾았다.

기숙사 카페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나는 내 방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느린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한테 한국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것도 당연 것이, 다섯 살 때 한국을 떠난 이후 이번이 첫 방문이기 때문이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지하철도 처음 타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운전수 없이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 현지인들도 자가용이나 Ojek(오젝)이라고 하여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한다. 한국처럼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도로가 설계되어 있지도 않다. 한국에서 맛볼 수 있었던 재미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을 벗어난 버스가 경주에 도착했다. 신라의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경주 박물관과 불국사의 정교함, 석굴암의 아름다움, 에밀레종의 전설……. 발길 닿는 곳마다 모두 다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첨성대였다. 첨성대는 고대 신라 시대 때 선덕 여왕이 별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단지 별을 관측한다고 알려졌을 뿐 실제 사용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사용법만 안다면 확실하게 첨성대가 아시아 최초의 천체 관측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웠다. 나는 고고학이나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 때 나의 과제로 남겨두



기로 하고 아쉬움을 달래본다. 박물관과 문화재를 돌아보고 디지털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 친근해 질 수 있었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도 갖게 되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었던 세종대왕 기념관도 기억에 남는다.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곳이 경희대이다. 경희대에는 많은 서양식 건물이 있었는데, 경희대를 대표하는 평화의 전당은 프랑스의 랭스 대성당과 닮았으나 규모는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니 실속 있는 설계로 4,500석을 갖춘 넓은 공연장도 있고, 훌륭한 무대와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바로 연극이나 공연을 할 듯한 분위기였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연극 난타 공연이다. 난타란 일종의 뮤지컬인데 기존 뮤지컬과는 다르게 요리 도구로 요리하며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어우러져 멋진 퍼포먼스를 연출해 낸다. 개봉 당시에 인파가 몰려 극장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요리와 음악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분위기와 재미, 기발한 아이디어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난타 공연을 보는 동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다 풀어놓을 수 있었다. 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공연을 보고 있는 관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한하면서도 유쾌한 경험이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경주에서의 신라 문화 체험은 우리나라 옛 역사에 대한 친근감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연수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사도우미

» 해군순항훈련전단 책 기증

지난 9월 10일(금) 자카르타 판중 뿌리옥항에 에 입학한, 해군순항훈련전단(전단장 해군준장 이병권)이 재외 한국학교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본교 자카르타한국학교에 아동 도서 400권, 교양도서 200권, 어학기(닥터위콤)를 기증해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학습 자료를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초등과정 수영대회



올해로 11회째 맞는 JIKS 초등과정 수영대회가 9월 24일(금)에 JIKS 교내 수영장에서 열렸습니다. 1학년 34명, 2학년 36명, 3학년 39명이 각각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 자유형릴레이에 참가하였습니다. 자유형릴레이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1,2,3위를 남녀별로 선발하였습니다. JIKS 어린이들은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 온 수영 실력을 멋지게 발휘하였고, 돌고래처럼 빠르게 물살을 가로지르는 JIKS 어린이들의 모습이 마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같았습니다.

» 2010학년도 독서골든벨 대회

2010년 1학기부터 그 동안 학년별 정독한 10권의 책을 문제로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대회가 9월 21일(화) 4,5,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강당에서 열렸다. 간단한 OX퀴즈로 시작한 독서골든벨 대회는 내가 쓴 골든벨판의 답이 정답으로 나올 때의 기쁨을 함성으로 외치며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아깝게 탈락한 학생들은 패자부활전으로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마지막 몇 문제에서는 모두들 숨죽여가며 누가 골든벨을 울릴 것인지 지켜보기도 하였다. 깜짝선물퀴즈와 명구절쓰기 선물 등으로 더욱 즐거운 대회가 되었다.

없이 생활해야 하는 한국 생활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는 많이 다름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은 조금 우스울 수 있으나 기숙사에서 세탁이나 옷 건조 등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사도우미가 세탁이나 방 청소 등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세탁을 하거나 방청소를 하는 일이 없다. 한국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는 어설피고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에 대하여.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들은 그 많은 것을 느끼며 성숙해간다. 이번 6박 7일 연수를 통해 세상에는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연수기간 동안 내가 실제로 본 한국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여름의 후덥지근함과 답답한 한국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앞서가고 있었고 자유롭고 편리했다. 나는 평소 부정적인 편이다. 특히 연수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인지 솔직히 이번 고국 방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국 연수는 나에게 내 나라 한국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과 함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자세를 갖게 해주었다.

그리운 조국, 그리고 정

JKS 8학년 이진환

한국, 내 조국을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유치원 때 한국을 다녀왔을 뿐이다. 그래서 조국이 항상 그리웠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 연수'팀으로 나의 조국, 한국을 가게 되었다. 조국으로 가는 밤 비행기 속에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37명의 재외동포 학생들 속에서 나 혼자 떠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외국에서 오래 살아 잘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한국은 얼마나 변했을까?' 10년 만에 우리 나라 땅을 밟는 순간 너무 설레고 낯설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희대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경희대 기숙사에 도착하니 방 키를 나누어주었다. '과연 나는 누구와 잘까?' 궁금해하며 긴장했지만 그곳에 있는 연수생 37명이 모두 잘해주었다. 모두 나처럼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같은 아픔, 같은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정말 빨리 친해졌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내가 인도네시아의 대표로 온 것 같아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느껴졌다.

경희여고에 갔을 때 모든 교사, 직원들이 한국사람이어서 오히려 생소했다.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외국에서 오래 살았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참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교는 해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중에서 가장 크다는 우리학교보다 더 크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위탁 연수를 받은 경희대학교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학구적으로 보였다. 나도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오고 싶었다. 어떤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았다.

시내 탐방을 했을 때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볼거리가 많아 깜짝 놀랐다. 우선 넓게 쪽쪽 뻗은 도로와 아주 많은 빌딩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많이 발전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청계천에 갔을 때는 인공과 자연의 조화가 아름다웠다. 이순신장군 앞에서 단체 사진 찍었을 때는 우리 재외동포학생들도 장군의 정신을 본받아 아무리 해외에 산다고 해도 조국에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난타 공연은 주방 도구로 악기처럼 연주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사물놀이 가락과 서양의 록이 어우러진 연주는 동포학생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경주는 오래된 도시여서인지 편안하고 고향에 온 것 같았다. 많은 유적지 중, 특히 첨성대와 경주코모도조성호텔에 간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인도네시아 유적지는 규모 면에서 대단하지만 첨성대는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다. 신라 문화 체험을 할 때 나는 한지에 첨성대와



에밀레종 모형을 찍었다. 한지에서 자연을 느꼈다. 에밀레종을 찍을 때는 족자에서 에밀레종을 봤을 때의 감격을 생각하며 찍었다. 예전에는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몰랐는데,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고 나서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 독립기념관(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관과 안중근 관을 탐방하였다. 유관순 누나가 순국한 감옥을 보며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이고 거사를 하기 전 손마디까지 잘랐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육계몽 활동에 앞장서고 동양평화 인류평화를 외친, 그렇게 큰 사람인지는 이번에 새삼 깨달았다. -아,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의 조국, 한국이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어떤 특강은 어려웠다. 하지만 좋은 교수님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문화를 더 자세하고 깊게 배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임진각! 임진각에서는 북한이 보이고 거기에는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정말 안타까웠다. 제3땅굴에 갔을 때는 천안함이 생각났다. 굴이 아주 길었는데 그 끝에 철 조망 같은 것이 있었다. 꼭 우리 나라 지도 경계선 같이 보였다. 북한 정부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다. 이 상태로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지려나? 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곳이다.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다짐과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연수 기간은 1주일이었다. 처음에는 1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낯설게 느껴졌는데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를 알고 배우는 과정이 새롭고 신선했다. 너무 짧은 연수 기간이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홈스테이를 통해 나는 '한국 사람들은 인심이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처럼 반겨주신 홈스테이 아주머니와 형 덕분에 편안하게 연수에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수 동료들, 수료식과 환송 오찬 때 나는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정'인가보다.

한족장의 위대한 선택

JIKS 11학년 박지성

제 15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주홍콩한국총영사관상 수상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가 누구죠? 그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했던 세리머니입니다. 박지성 선수와 제 이름이 같아서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잘 외우고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저는 한국 축구의 우수성이 아닌 한국어의 우수성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한국어가 어렵다는 생각만으로 배우기를 꺼려하곤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발음이 어렵고 높임말이 있어서 더 어렵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노래방에서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천 년 이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박원규의 ‘천 년의 사랑’이었지요. 그곳에서 이 낯익는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젊은 인도네시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통해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렵다는 편견을 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드라마와 같은 한국의 문화 즉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취향과 기호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국어의 우수성 즉 실용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부족도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짜아짜아 부족입니다. 짜아짜아족은 인도네시아 원시 부족으로 그들만의 고유의 문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나 노래 때문에 한국어를 자신들의 문자로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한국 문자가 그들의 소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글을 차용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짜아짜아족의 족장은 자신



들의 소리에 맞는 문자를 찾기 위해 라틴어, 중국어, 영어 등 많은 언어를 선택하여 접목시켜봤지만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ㄱ’ ‘ㄷ’ ‘ㅂ’ ‘ㅈ’ ‘ㅊ’ 와 같이 된소리가 많이 쓰이는 짜아짜아 말을 된소리가 없는 영어와 중국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 많은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말을 표현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말이 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져가는 짜아짜아 부족언어를 살려준 한국어~한 부족 시장의 위대한 선택 한국어~이제 한국어는 사라져가는 세계의 토속어를 살리는 대안인 것을~자카르타에서 온 이 연사 강력히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의 글이 이처럼 세계에 전파되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목적인 ‘쉽게 익혀 널리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의 실현 사례입니다. 나아가 다시 한번 한글이 가장 익히기 쉽고 실용적인 글자라는 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지금은 비록 미국이라는 경제적 강국의 영향 아래 영어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언어의 세계화에 있어 문화적 측면과 실용성이 강조된다면 한국어가 더욱더 부각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자가 없어서 자신들의 말과 문화를 잃어가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부족들에게도 500년 전 세종대왕의 뜻 깊은 의도가 전해지길 다시 한번 바라 봅니다.

홍콩에 오신 청중 여러분, 쉽고 편리한 한글의 세계화에 나침반을 맞추어 이제 한글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토속어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히 강력히 외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난 “정”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가슴에 오래 남고, 연수가 감동적이었다. 난 아직도 37명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다. 1주일 동안 이토록 친해질 수 있는지 지금도 믿기지가 않았다. 아직도 37명 연수생들이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모국방문 연수를 생각하면 잠깐 동화 속에서 놀다가 깨

어난 것 같다. 또한 연수를 통해 내가 많이 커버린 것 같아 내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모국방문 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전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국에 보내주신 선생님들과 이 행사를 주최한 국립국제교육원과 교육을 맡아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The Heart of Korean Economy, Hansang
한민족 경제의 중심, 한상(韓商) 네트워크!

제9차 세계한상대회

2009.10.19 (화) ~ 21(목), 대구 엑스코

대회개요

- 가. 기 간: 2010년 10월 19일(화) ~ 10월 21일(목), 3일간
- 나. 장 소: 대구 엑스코 (EXCO)
- 다. 규 모: 40 개국 3,500 여명 (국내 2,300 / 국외 1,200)
- 라. 주 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 마. 주 관: 재외동포재단,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매일경제신문·mbn
- 바. 슬로건: 한민족 경제의 중심, 한상(韓商)네트워크!

□ 등록안내

가. 등록

참가신청 방법

- 온라인: 대회등록사이트(<http://hansang.korean.net>)를 통한 등록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
- ※ 단체등록의 경우 본부사무국과 사전협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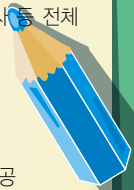
1차, 2차 등록 기간 : 2010년 5월 ~ 9월 30일

현장 등록 : 2010년 10월 19일(대회당일)

현장 등록비: USD 450

나. 등록비 포함내역

- ① 숙박제공: 2010.10.19 ~ 21 (3박, 2인1실)
 - 1인1실 사용 및 동반가족 1인당 추가비용부담 (USD 350, USD450)
- ② 프로그램 참가: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
- ③ 식사제공 : 총8회
 - 행사장: 10.19 만찬, 10.20 ~ 21 오, 만찬
 - 숙소: 10.20 ~ 22 조식
- ④ Convention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 ⑤ 숙소-행사장간 무료 교통편 제공



제7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강좌

[인도네시아, 굴곡의 현대사 IV]

- 주제 : 수하르토 이후 3, 4, 5대 하비비, 구스 두르, 메가와띠 대통령
- 강사 :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
- 진행 : 강의, 질문, 다과
- 대상 : 인니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일시 : 2010. 10. 30(토) 10.00~12.30
- 장소 :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때 인도네시아는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는 이러한 나눔과 공존을 향해 열린 교민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알차고 뜨겁게 전개되는 굴곡의 인니현대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교민사회의 거대한 문화의 줄기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성취도는 세상으로 나가 이바지해도 좋다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한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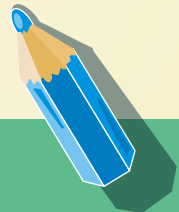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0. 09. 01부로 서울-자카르타 행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하여 기내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완료하는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
BOARD)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 내출입국심사제도(IMMIGRATION ON-BOARD)는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2명이 서울발 자카르타행
가루다항공에 탑승하여 기내에서 우리 국민 등 승객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입국심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교부하며, 동 절차를 마친 승객은
도착지인 수카르노하따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이민청 직원에게 반납함으로써 입국절차가 완료됨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Garuda항공 체크인카운터 옆에 마련된 도착비자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도착비자수수료(25불)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기내에서 이민청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동 제도 시행으로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받기 위한 만성적인 대기시간(최대
2시간 정도)을 없애 당지 입국에 따른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당지 이민청은 동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인천공항-발리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권설청,M&A,부동산,저당
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
속,지적재산권,소송,중재,재단법인,출입
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제사
(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인도네시아어 강좌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월화차회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 720-4211, 0818-49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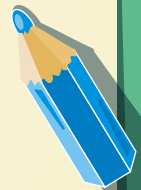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한국어 강좌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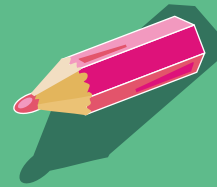
부인회 취미 활동반 안내

- 꽃꽂이반 개강 -

요일 : 화요일
 시간 : 09:00 ~ 11:00
 장소 : Taman Gandaria C-23
 연락처 : 021)739 6444,
 hp : 0811-834-026
 (사) 한국 꽃예술작가협회 루시 플라워회
 회장 최정순

최근 테러위험 고조 관련 신변안전 유의

1.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마 이슬라미아 (JI) 지도자와 조직원들이 테러기도 혐의로 대거 체포된 이후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JI 과격세력들의 보복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시설 및 다중장소 등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교민 여러분 및 여행객께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시설 또는 다중장소(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 출입 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AIR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대한항공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1. 마일리지 유효 기간 10년으로 확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3.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였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되어 소액의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대한항공 운항 시간표]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8	매일	2010.3.28	2010.10.30	자카르타	22:05	서울	07:05*1
KE627	매일	2010.3.28	2010.10.30	서울	15:45	자카르타	20:3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결제 및 배달가능)
- ◆ 정품다이아(GIA 감정서 첨부)판매-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출장 상담 및 공급 가능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미술협회 신입회원 모집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회장 인치혁)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수시

회원자격: 미술 전공자 또는 전시 경력자

연락처: 김영민 (0818-916-566)

김수영 (0858-8543-6348)

재인도네시아아 한인미술협회

대사관 임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자신을 더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현분 현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謙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플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플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뿐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추후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Art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Empir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컷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
- 토 · 일요일 서비스가
- 배달 서비스가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짜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침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브짜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컷-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발리인터네셔널 라운지	759	368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타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7081	952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aninnews123@gmail.com



선비의 갓 끈을 닮은

Kacang Panjang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 021-7278-7410

콩은 콩인거 같은데 이렇게 긴 콩이 있다니... 인도네시아에 살다보면서 각종 야채볶음, 수프에서 빼놓지 않고 자주 보는 채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콩각지가 길게 늘어진 'kacang panjang'입니다. 영양가 많은 콩에다가, 껍질째 먹는다면 어떨까? 호기심에 눌러보면 말랑말랑 하면서도 안에 콩들이 줄맞춰 일렬로 촘촘히 박혀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약간은 낯설은 채소이기에 더 궁금함이 몰려옵니다. 푸르른 초록빛에 날씬하고 긴 몸을 가진 kacang panjang. 다 익은 까장 뽕장은 보라색, 갈색으로 변한다고 하며, 지붕위에서도 주렁주렁 잘 자라 햇빛 가리는 발 대응으로 혹은 관상용으로도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촉망되는 미래 건강식품으로 기대되는 건강한 채소 kacang panja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장 뽕장의 학명은 *Vigna sinensis* 이며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입니다.

원산지는 아시아 남동부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배지역은 주로 극동아시아(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및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 재배합니다. 재배시의 평균

온도는 20-30도 정도로 비교적 고온에서 잘 자라고 키우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고 빨리빨리 자라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됩니다.

까장 뽕장을 영어로는 yardlong bean, cowpea, asparagus bean, snake bean, 혹은 Chinese long bean, 만다린으로는 jiang dou (豇豆), 태국에서는 thua fak yao (ถั่วฝักยาว), 베트남어로는 đậu đũa(젓가락콩이라는 뜻)이라고도 하며, 한국명으로는 갓 끈 모양처럼 늘어졌다고 하여 갓끈동부, 동부콩이라 불립니다.

까장 뽕장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길며, 그 길이가 40~60cm 정도 됩니다. 긴 건 1m정도라니 그 길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20cm 자를 가지고 열심히 2번이나 나눠졌지만 아직까지 길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야채는 콩을 꼬투리에서 빼먹는 게 아니라 꼬투리 채 먹는 과채류입니다.

폭은 0.5~1cm으로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만지면 탄력도 있고 속이 딱 찬 느낌입니다. 속을 쪼개어보면 알이 다 차지 않은 것도 있고... 연두색 작은 콩들이 간격을 맞춰 누워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보통 각종 야채들과 볶아 먹거나 튀겨 먹고 각종 음식에 곁들여 먹습니다. 맛은 고소하고 질기지 않

으며 푹푹한 꼬투리가 씹는 맛을 살려줍니다. 사실 까짱 뻥장은 다 익으면 잘 안 먹는다고 하나 푹푹할 때 꼬투리째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요리가 쉽고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까짱 뻥장을 한의한적으로 살펴보면 성은 한(寒)하고 미는 함 감 고(鹹甘苦)하며, 귀경으로는 족소음 신경, 수태음폐경, 족양명위경, 족궤음간경이 됩니다.

콩과의 한약재로는 ‘담두시(淡豆豉)가 있습니다. 담두시는 콩의 씨를 삶아서 발효시킨 것을 말합니다. 담두시의 약효를 보면 신체 표면의 사기를 제거하고 감기로 인한 발한해표(發汗解表)하여 풍한, 풍열에 쓰며, 번민, 울체된 기운을 풀어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까짱 뻥장은 한방명으로 “강두(豇豆), 착두(蠶豆), 강두자(豇豆子)라고도 부르는데 본초강목에 따르면, 맛이 달고 평하며 지혈(止血), 청열해독(淸熱解毒), 위장을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잘 흘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를 발휘하며, 비위허약(脾胃虛弱)이 있는 분이나, 설사이질(泄瀉痢疾), 토역(吐逆)등에 좋으며 평소 갈증을 많이 느끼거나, 신장기능이 약해서 오는 요통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중화본초 《中華本草》에 따르면 까짱 뻥장 중 하얀 빛깔을 내는 것은 비위를 포함한 소화기능에 유익하고, 변이 묽거나, 부종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다고 합니다.

까짱 뻥장은 100g중, 36kcal, 수분 88.2g, 단백질 3.5g, 지방 0.1g, 탄수화물 7.3g, 섬유질 3.6g이며 비타민 A, C뿐만 아니라 칼슘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질병과 싸우는 세포의 성장을 돕는 중요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과, 암을 예방하고 항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증강 효과가 있는 비타민 B도 풍부하며, 근육 생성과 활력 증강에 유용한 단백질과 소화를 돕고 심장건강에 필요한 섬유질도 들어있어 몸에 좋은 저칼로리 다이

아트 식품이면서도 영양까지 고루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까짱 뻥장을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하여 먹어야 맛있다고 합니다. 기르기가 쉽고 빨리 자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며,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여 충분한 영양섭취가 힘든 현지 사람들에게 밥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통 여러 등분으로 잘라 고추, 마른새우, 두부(뽕뽕)등을 넣고 볶아먹습니다. 또한 각종 볶음밥, 오믈렛에 넣어 먹기도 하며, 샐러드, 국에다가 넣어먹고, 밥에다가도 넣고 찐 후 먹는다고 하니 여러 반찬에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는 야채입니다.



예로부터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우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단백 완전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네 된장찌개나 어류의 찌게에 넣어줌으로써 그 향과 맛이 담백하고 향긋하며 씹히는 부드러운 촉감은 천하일미이며, 튀김 또는 살짝 익혀서 초장을 곁들이면 술안주 또한 일품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다이

아트식품으로 활용 시 하루 한 끼는 20g을 복용하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용시 5~10g을 아침공복에 물 없이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까짱 뻥장. 까짱 뻥장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껍질째 먹기 때문에 비타민과 섬유질을 다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먹는 것이 풍부해질수록 콩이 더욱 중요한 식품으로 떠오를 것이며, 까짱 뻥장 역시 일등공신 건강음식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년여 동안 게재되어왔던 건강칼럼이 김효영 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호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민의 건강의 절친한 도우미로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효영 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아이의 비밀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 제 · 트

글: 이 전 순

파푸아뉴기니의 해변에 있는 조그만 마을, 그곳 아이들은 자기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지내고 싶은 곳에서 마음대로 지냅니다. 열 살쯤 되면 갓난아기를 돌보거나 요리용 화덕을 관리하고, 열네 살쯤 되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어른들 몫의 일을 해냅니다.

그곳은 참으로 부모노릇을 하기에 편한 곳입니다. 부모 노릇의 수고나 즐거움

을 마을 전체가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른이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부모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 노릇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위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수퍼 부모'가 되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즉 오락과 교육, 사랑과 관심, 식사, 음료, 안전, 의복, 청소까지 전부 부모가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는 처지라면, 집안일에 갇혀서 뚝딱달딱 못 한 채 친구들이나 바깥세계를 그리워할 겁니다.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서는 쪽이라면, 마치 돈 버는 기계가 된 것처럼 가족이나 집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또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항상 피곤하고 짜증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느끼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부모들 자신이 기분이 좋고, 곁에 누군가가 있고, 건강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돌볼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아프고, 외롭고, 온갖 책임에 짓눌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귀찮고 짜증스런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여러분 자신이나 결혼생활, 자녀들이 위험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 더 이상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허덕거리면서, 왜 그렇게 기운이 빠지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부모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도 때로 '연료'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초인간적인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남들로부터의 인정, 위로와 대화,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뺏어가기도 하고 기운을 복돋워 주기도 합니다. “아,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진단니까!”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어이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인 우리가 그들을 충전시켜주는 것이 옳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들만이 유일한 공급원이고, 부모의 기운이 모조리 소진된 상태라면 반동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연료를 채워주는지 고갈시키는지 생각해봅시다. 때로 사람들은 '친구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가져가기만 할 뿐'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좋았던 사람들이, 부모님도 포함시켜서,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바꾸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으~! 이번 주는 정말 끔찍했어.”

“어, 그래? 난 좋았었는데. 어떤 일들인지 말해줄래? 그럼 자네 기분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아이구, 말도 마. 오늘 사무실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혼쭐이 났단니까.”

“그래? 무슨 문제들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자구. 아니면 휴가가 다음 주로 다가왔으니 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무거운 대화를 기분 좋은 주제로 살짝 바꾸면서 유머를 곁들이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멋진 방법이지요.

젊은 부모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부모들의 연료 탱크를 다시 채워넣을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보모를 구한다. (대부분 아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이곳 가정에서는 거의 까까가 있지요?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지요.)

- ▶ 아이들이 부모와 있는 것을 지루하게 만들어, 잠시라도 자기네들끼리만 놀게 한다. (아이들이 칭얼대는 것을 10분만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 ▶ 배우자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10분은 함께 보낸다.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아이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으면 함께 있어도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에 있게 한다.)
- ▶ 짧은 시간이나마 아이들에게 완전히 집중한다. 몇 시간 동안 건성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0분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지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든다.
- ▶ 나름대로 머릿속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익힌다. 집안일을 하는 도중이라든가 출퇴근길 혹은 다른 어떤 순간을 택해서 그 시간만큼은 느긋하게 기분좋은 일들만 생각한다.
- ▶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 ▶ 다른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 ▶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상대방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안마를 해준다. 안마를 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 ▶ 복잡한 쇼핑이나 직장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위하여 놀이방이나 보모 등을 활용한다.
- ▶ ‘어질러져 있는 것도 아름답다!’라는 깨달음을 받아들이거나,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아예 2~3년 동안은 포기한다. (청소기를 항상 문 앞에 두고는 손님이 왔을 때 “이런, 지금 막 청소를 시작하려던 참인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집 안에 아이들만의 공간을 두어 비싸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고 청소하기 편하게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기운을 뺏다거나 하루에도 수백 번 하게 되는 “안 돼! 그거 만지지마” “어지르지 마”같은 말들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 ▶ 집 안에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된 공간을 두어(침실을 그렇게 삼아도 좋다) 아이들이 그곳에는 들어오지 않게 한다. 언제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놓는다.
- ▶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책을 토론할 때에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없을 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한다. 부부의 침실을 걱정거리를 풀어놓는 장소로 만들지 않는다. 침실만큼은 철저히 느긋하고 아무 걱정 없는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없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들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고 높은 기준치를 잡아놓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은 가장 꼬트머리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 ▶ 배우자를 돌보는 것
- ▶ 자녀를 돌보는 것

이제까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자식의 하인 노릇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놀랄 일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곧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는데”라거나 “뉘든지 제일 좋은 것은 너한테 다 갖다 바쳤다”라며 죄책감이나 부채감을 주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부모 노릇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돌본 다음에야 배우자와 자녀가 뒤를 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행복해지며 여유를 갖게 되지요. 이렇게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라야 남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돌보는 것도 여러분이 가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심어줍니다. 즉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집에서 아내 키우는 사람, 혹은 생활비 벌여오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안정된 마음과 느긋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부부의 역할을 가끔 바꿔보아야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신선한 느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만약 부모 노릇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선택했다면,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고, 자신을 지탱해주고 격려해 주는 배우자와의 우정을 쌓은 후라야, 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도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연료 탱크는 가득 차 있어야 하며, 그래야 여러분 자녀의 다 떨어진 연료를 급하게 사느라 이리저리 뿔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

두 돌이 지난 민수는 아주 다루기 힘든 아이입니다. 마치 뱃속에서부터 고집부리는 것을 익힌 듯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각종 기발한 투정을 동원해서 요구에 요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수 엄마는 대처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이것은 민수 또래의 모든 아이들이 겪는 정상적인 성장 단계이며,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고, 둘째로 ‘부드럽게 거절하는 기술’을 익혀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이 두 살짜리 아이와 여전히 힘겹게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들은 당황하고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악을 쓰는 것을 이기기 위해 자신들도 그에 못지않게 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수 엄마는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귀가 무척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굉장히 부드럽게 ‘안 돼’하고 말합니다. 민수가 계속 떼를 쓰더라도 똑같이 부드럽게 ‘안 돼’하고 말합니다. 동시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온몸의 긴장을 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어 시간 정도의 연습으로 터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만약 민수가 고통을 지르면, 특히 공공장소 같은 데서 그런다면 아이를 번쩍 들어 차에 실어버리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곧 힘을 빼고 속으로 웃어봅니다. 어린 아들이 자기를 휘어잡기 전에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져 아이의 기양양해할 것을 상상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민수 엄마는 자신이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익힌 후에 오히려 아들이 말썽이 줄어든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음식과 어린이의 행동

아이가 학교생활도 잘해내고 침착하게 자신에 대해 만족할 줄 알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두 배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식단을 바꾸는 것! 청소년 범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음식 섭취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식단을 바꾸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기운이 솟는 걸 느낄 수 있으며 제대로 식사를 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가끔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언제 먹이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식과 심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1. 오랫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을 고릅니다.

음식 섭취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성장을 위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고 있지만,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인가 아닌가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탄수화물 복합체와 단백질이 든 음식은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은 극심한 피로를 예방하고 정신을 집중시켜주고 아이들을 안정되고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탄수화물 복합체(현미나 통밀로 만든 음식, 잡곡밥)와 고단백 음식, 신선한 야채나 과일이 포함된 '아침식사'를 매일 해야 합니다.

2. 먹는 시간을 잘 맞춥니다.

아침식사! 아침식사가야말로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 공급의 원천입니다. 오후나 저녁때 먹는 음식도 영양을 공급하긴 하지만, 그 음식이 주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 사용되지 못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먹는 일은 비만을 예방하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고 나서 활동하면 필요한 영양분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나 아이 모두 저녁을 배불리 먹고 앉아서만 있거나 잠자리에 들게 되면, 음식은 지방분으로 체내에 축적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으면서도 '언제' 먹느냐를 제대로 선택하면 체중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직접 시험해봅시다. 아이에게 달걀이나 육류, 생선 같은 식품으로 아침식사를 만들어 2주 정도 먹여봅시다.(아이들이 아침에 배고프지 않다고 불평하면 전날 저녁식사를 조금만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해지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3. '당장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식품을 피한다.

설탕이나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아이들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을 먹고는 곧바로 지나친 에너지를 얻어 날카로워지고 과다하게 움직이고 심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검사를 해보면 에너지는 급하게 많이 방출되고 혈당은 떨어져서 몸의 균형이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이 맑아야 할 오전 중에 축 늘어져서 게을러지고 산만해집니다.

4. 화학첨가물, 색소, 방부제를 피한다.

식품첨가제나 색소는 복합적이면서 각각 다른 효과를 일으킵니다. 어떤 첨가제는 일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첨가제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작용합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의 경우 설탕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노란색을 내는 식용색소에서 발견되는 타트라진(E102)은 어린이를 몇 시간씩 지나치게 활동적으로 만듭니다. 핫도그나 햄버거, 가공된 치즈, 인스턴트 수프 등의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인산염 역시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에게 좋은 아침식사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배가 덜 고프게 되어 몸에 해로운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친구 집의 파티에 가는데 그 집 부모가 청량음료, 케이크, 아이스크림, 사탕 같은 음식을 선호한다면 아이가 그곳에 가기 전에 식사를 하게 해서 해로운 음식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합니다.

음식과의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해로운 음식을 제한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게 먹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정성껏 돌보고,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 돌볼 수 있기 위해선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잘 돌보고 충전시킨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님을 이해하시겠지요? 시간적으로 우선 돌보아야 할 대상을 체계두고 언제든지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이야기도 더욱 아닙니다. 시간배치는 각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돌보고 충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9회에 걸쳐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지면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문따이 Amuntai 먼찐따이 Mencintai



김 성 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한국인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지도 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문따이(Amuntai), 아문따이’ 아느냐고 물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 먼찐따이(Mencintai)는 모두 아는데 알아도 아주 잘 아는데 아문따이(Amuntai)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먼찐따이는 ‘사랑 한다’는 말이었고 ‘아문따이’는 바로 출연자들이 미션으로 찾아가야 할 곳, 물소들이 살고 있는 깔리만탄 섬 남부 지역의 ‘자그마한 도시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아이템을 주고받으면서 출연자들이 공항에서 미션 찾는 모습을 촬영해야 한다가에 어느 공항이 좋을까, 나는 잠시 생각해 봤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은 너무 번잡하고 말랑 공항은 이름만 공항이지 공군비행장이니까, 그렇다면 수라바야 국제공항이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제작팀들이 수라바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카메라 두 대가 여기저기서 찍고 있다. 두 남녀가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한 사람이 바닥에 퍼지려 눕고 난리를 피우니까 공항에 배웅과 마중 나왔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가방을 끌고 나가던 사람도 목이 돌아갈 정도로 돌아보면서 갔고 담배 불 붙이려던 사람도 무리하게 기다리다가 공항 바닥에 퍼지려 잠자던 사람들까지 별떡 일

어나 촬영하는 우리들을 에워싸 버렸다.

자바 섬 수라바야에서 국내선 타고 깔리만탄 섬 반자르마신에 도착했다. 반자르마신에서 아문따이로 5시간 가는 동안 소나기도 오고 어두웠다. 자동차 안에서 몸이 뒤틀리고 허리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설만한 곳이 없어 논스톱으로 달렸다. 그곳은 홀르 송아이 우따라군(Kabupaten Hulu Sungai Utara) 아문따이의 군청관사였다. 우리가 간다고 연락했더니 숙소까지 제공해 주시고 축협소장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맷았다. 그러나 출연자들도 있고 숙소가 너무 허름하면 호텔로 옮기려고 내가 먼저 살펴봤더니 관사치고는 꽤 좋았다. 오지로 다녀본 내 경험에 의하면 그곳 관사는 웬만한 시골의 별 달린 호텔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았다.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자출연자가 고함을 질렀다.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찌짱을 본 것이다. 하긴 나도 인도네시아 와서 처음에 찌짱(Cicak) 보고 놀란 가슴이 아직도 간헐적으로 벌렁거린다고 해도 그리 허풍은 아니다. 그런데 도마뱀처럼 생긴 것들이 꼬리를 치며 꼬물꼬물 기어 다니는 걸 생전처음으로 아가씨가 봤으니..... 찌짱은 파리처럼 생각하라며 겨우 달렸다. 글썽 두 발자국이나 옮겼을까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개구리를 본 것이다.

그 광경을 본 현지인들은 한국에는 개구리가 없는 줄로 알고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보고 괜찮은지 물어왔다. 나도 이 나이에 호들갑을 떨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릴 적 개구리 잡아 뒷다리 구워먹은 추억을 왜곡하기는 싫었다. 내 보기에 개구리는 개처럼 짖어대며 신발을 물어뜯으려고 것도 아니고 그저 땅바닥에 납작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 개구리를 보고 괴성을 질러대니 오히려 개구리가 경기에 도망



가려고 폴짝 뛰는 것이 그만 여자 신발위로 가버렸다. 여자는 더욱 괴성을 질렀고 그 괴성은 그날 밤 아문따이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레스토랑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고 허름했지만 널찍한 포장마차 집이 보였다. 뜨거운 홍차 한잔, 이가 빠진 접시 위에 얹전히 놓인 밥 한 덩어리와 아주 숯불에 구운 닭다리에 고추와 마늘을 살짝 익혀서 돌려 버물려진 고추양념을 골고루 발라가면서 모두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배부른 것에 비해 식사 값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 그런데 피디는 축협소장님의 가족들 밥값까지 지불한 것이 아까운지 왜 가족들까지 와서 밥을 먹냐고 내게 물었다. 호텔 요금 아끼도록 관사에 공짜로 재워주는 그들의 배려와 나의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 나의 고마움도 모르고 밥값 몇 푼을 가지고 의문을 품는 피디에게 인도네시아 현실을 일주일 동안이라 설명해야 한다니.....

아침이 되었다. 자동차로 두 시간 스피드보트 타고 한 시간을 또 더 갔다. 수상가옥들이 밀집해 있고 수상외양간 있는 물소마을에 도착했다. 지나치면서 바라만 봤던 저 수상가옥들, 저 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었는데 내가 들어선 것이다. 배를 탄 기분이기도 하고 홍수 위에서 있는 난민 같은 기분도 들었다. 마을길이 나무로 깔아 놓은 것이 흡사 기차길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어서 우리를 구경했다. 동장님은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과자도 내어주고 귀한 생수도 대접해 주면서 하룻밤 함께 묵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했다.

우리는 강으로 갔다. 사람들은 물소 키우기도 하지만 물소가 없는 사람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목선 2대로 나눠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나와 함께 탄 피디가 자꾸 출연자들이 개고생 해야 하는데 짓곳은 걸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출연자들과 함께 탄 사공에서 강물을 마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더러워서 못 마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래도 한번 마셔보라고 권하니 정말 손으로 여러 번 퍼 마셨다. 이걸 옆에서 본 출연자도 “이렇게요“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강물을 퍼 마셨다.

얕은 강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미리 놓아 둔 그물을 건져보고, 가져 온 투망을 쳐봤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 사람들이 가서 물장난하고 수영하고 떠들었으니 미리 알고 물고기들이 도망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물고기는 잡지 못하고 어부에게 노래 불러 주고 물고기 한 마리 얻어서 돌아왔다.

처음에 스피드보트 타고 올 때는 흥분해서 그랬는지 물빛깔을 몰랐다. 그러나 목선 타고 천천히 가다 보니 강물색깔은 인도네시아 강에서 늘 보던 황토색 물과는 달리 색깔이 진했다. 보는 이들에 따라 표현도 달랐다. 남자출연자 노숙자씨는 목이 말랐던지 콜라 색이라 했고 여자출연자 이유하씨는 여자답게 홍차 색깔, 권피디는 초콜릿 색깔 선배인 주피디는 성씨에 맞게 흑맥주 색깔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어릴 적에 외양간 뒤로 흘러나오는 물빛과 같은 색이라서 소똥물이라고 말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출연자 노숙자씨가 말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아까 소똥 물을 마신 건가요?”

“아니요, 아까는 강물이었어요.”

“지금은?”

“.....”

이건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밝혀야겠다.

그날 밤 사실 우리 다섯 명은 아무도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도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강물 속의 지하수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맑은 지하수에 손발도 씻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소변보는 일도 어려웠는데 목욕까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확 트인 대청마루 같은 곳에서 옷 입고 옷 속으로 손 넣어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그 야릇한 방법을 터득하기보다는 차라리 중



일 흘린 땀 냄새 파스냄새 맡는다는 생각으로 옷만 갈아입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더니 두꺼운 안경을 쓴 동장님이 컴퓨터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서류는 경찰서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 지역은 물고기 보호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물이나 일반 도구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주민 두 사람이 발전기와 약을 뿌려 물고기를 잡다가 경찰 단속반에게 잡혔던 것이었다. 처음에 환하게 반겨주던 동장님의 미소가 어둠에 묻혀 지는 것이 나는 몹시도 안타까웠다.

윤슬처럼 빛나던 꺼르바우들의 눈망울

아문파이에는 일곱 마을에서 꺼르바우들을 키우는데 약 7천여 마리다. 강 중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모두 외양간들이었다. 꺼르바우들은 아침 일찍 등교하듯이 강으로 나갔다. 하루 종일 물풀을 뜯어 먹고 오후 늦게 목선을 탄 목동과 함께 외양간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몸집을 물속에 숨기고 가지런히 내민 꺼르바우 얼굴들, 거무스름한 물속에서 커다랗게 뜬 꺼르바우들의 눈망울은 강물의 윤슬보다 더 빛났다. 강물에 수영하는 꺼르바우들에게 날마다 음악을 들려준다면 수중발레를 해도 아주 유연한 포즈들을 연출 할 것만 같았다.

꺼르바우들은 고삐가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만의 표시를 해 두었는데 귀를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코에 글자를 적어 넣던지 그도 아니면 귀를 두 번 자르던지 목에 색깔 있는 글자도 적혀 있었다. 꺼르바우들이 외양간에서 강물로 입수할 때는 저마다 달랐다. 다이빙하는 녀석 영금영금 기어가는 녀석, 멋지게 다이빙하려다가 익숙지 못해 침병거리며 물에 빠지는 녀석들, 내 보기에는 꺼르바우 수영학교 선수단 같았다.



자신의 소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소를 키워주는 월급으로 송아지를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키워주고 있는 소가 열 마리라면 처음에 송아지 낳으면 주인의 몫이고 그 다음은 소 키워주는 목동의 것이다. 꺼르바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였다. 외양간 한 곳에 약 50-100여 마리씩 있었다. 게다가 그 많은 어미 소들이 일 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식구가 늘겠는가?

그곳에서 물린 모기 자국이 가려워 긁다 보니 지금도 윤슬처럼 반짝거리든 소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

민사 소송법 - 2

이승민 변호사·변리사(YSM & PARTNERS) / yisngmin@centrin.net.id

(전호에서 계속)

6. 위임장

수임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수임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법원의 위임장에 관한 회서에서 규정한 형식 요건 및 실질 요건을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 위임장이거나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거나 법적 효력이 마찬가지이나,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국내에서 작성된 위임장과는 다른 절차와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관한 대법원의 회서에 의하면, i)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 사항, ii) 위임자의 법적 지위, iii) 위임하는 사건에서의 위임자의 법적 위치, iv) 관할 법원, v) 사건 상대 당사자의 인적사항, vi) 사건의 목적 및 종류, vii) 위임장 작성지에서 공증, viii) 공증된 위임장은 작성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등록이 필요하며, ix) 주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경우, 소송용 위임장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등록을 해주기 전에 한국 정부의 외무부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은 인도네시아 국내 공인 번역사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위임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 후에야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인도네시아 해외 공관을 거치지 않은 위임장일지라도 관할 법원에서 등록을 받아 주며 소송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회서에 규정된 인도네시아 해외공관의 미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송용 위임장은 인도네시아 해외 공관에 등록을 마치고 수임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또 위임장 작성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민사 소송 목적으로 한 위임장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법정대리인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더라도 이 위임장은 지방법원에 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시에는 항소용 위임장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 시에는 상소용 위임장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항소 및 상소 시한이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오는 위임장이 시한을 넘기지 않고 도착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다.

7.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의 관계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준 위임장이 주문서이고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 간에 체결한 수임 계약서는 종속 문서이므로 위임장을 취소하면 수임 계약서는 자동으로 실효되며, 따라서 수임 계약서에 약정된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실효한다고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의 관계를 잘 못 이해하여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수임 계약서는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이며, 위임장은 수임 변호사가 법정 내외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활동할 권리를 부여한 서류이다. 따라서 수임 계약서와 위임장은 서명 당사자, 즉, 법적 주체는 동일하지만 약정한 법적 목적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서류이다.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경우에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실망하고 위임장 취소를 통보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가 실효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취소했노라고 통보하더라도 수임계약서는 쌍무계약이므로 수임 계약서에 약정된 변호사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임장을 취소한 결과로 수임 변호사의 권리



가 침해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수임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한다. 위임장 취소는 의뢰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위임장 취소 권리 행사가 계약서에 약정된 수임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 의뢰인이 수임 변호사에게 준 위임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수임 계약서에 약정된 수임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의뢰인은 수임 변호사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8. 민사 소송의 종류

민사 소송에는 2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고와 피고가 있는 일반 소송이 있고, 원고만 있고 피고는 없는 청원 소송이 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 소송의 판결문과 피고가 없고 원고만 있는 소송의 판결문은 다르게 호칭한다.

9.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

9.1. 피고없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을 Gugatan Permohonan 혹은 Gugatan Voluntair 이라고 부른다. 원고만 있는 소송은 민사상의 이해관

계 당사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for the benefit of one party only)을 위한 사항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사항, 제삼자와 분쟁이 없는 순수한 민사상의 사항으로 법률적인 확정 이 필요한 사항, 법원에 청원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인 이외에 제삼자를 청원의 당사자로 끌어 드리지 않은 사항에 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고없는 소송의 판결문이 제삼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 일반 소송 사건에서 원고만 있는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문은 공정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피고없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를 들어 본다.

- 9.1.1. 상속인 확인
- 9.1.2. 부모가 반대하는 혼인 허가
- 9.1.3. 혼인 금지 명령
- 9.1.4. 미성년자 혼인 허가
- 9.1.5. 결혼 취소 확인
- 9.1.6. 보호자 임명
- 9.1.7. 입양 허가
- 9.1.8. 지적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한 법원의 명령
- 9.1.9.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 소비자 관할 법원에 판결문 집행 허가
- 9.1.10. 공정거래 위원회의 확정 판결문 집행 허가
- 9.1.11. 불법행위 혹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조사 허가
- 9.1.12. 단수 주주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 9.1.13. 이해관계 당사자의 주식회사 해산 명령
- 9.1.14. 공익을 침해하는 회사에 대한 검찰의 회사 해산 명령
- 9.1.15.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이사회 혹은 감사회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허가
- 9.1.16. 법원의 확정 판결문 집행 허가

9.2.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 절차

- 9.2.1. 원고만 있는 소송도 원고와 피고가 있는 소송처럼 법정이 개정된다.
- 9.2.2. 판사 1명이 재판을 한다.
- 9.2.3. 원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만 조사한다.
- 9.2.4. 주장, 반박, 결론의 절차 없이 판결문을 내린다.

9.3.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물

원고가 없는 청원 재판은 입증 의무가 100%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물은 반드시 형식 요건 및 실질 요건을 갖춘 증거물이어야 하다. HIR 민사소송법 제164조, RGB 민사소송법 제284조 및 민법 제1866조에 규정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은 다음과 같다.

- 9.3.1. 서류, 문서, 서한, 글자로 작성된 것
- 9.3.2. 증인의 증언
- 9.3.3. 추정
- 9.3.4. 고백, 시인, 자백
- 9.3.5. 선서

9.4. 원고만 있는 소송에 대한 제3자의 개입 가능

원고만 있는 소송에 이해관계 당사자 혹은 지방법원이 청구자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문을 내릴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고만 있는 소송 진행 중에 지방법원에 청구자의 청구 사항을 기각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원고만 있는 소송에 개입하는 제삼자의 청구는 원 청구자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제한된다.

9.5.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 기각에 대한 상소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은 지방법원 단심제이다. 지방법원이 제1심 법원이자 마지막 심급 법원이라는 뜻이다. 원고만 있는 소송 청구자의 청구 사항이 지방법원에서 기각되고 청구자가 지방법원의 기각에 불복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의 기각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불허하며 대법원에 상소만 허용한다.

9.6. 피고없는 소송의 판결문에 대한 소송 청구

지방법원의 허가 혹은 확인 판결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내려져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소송법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 9.6.1.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무효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원고만 있는 소송을 청구했던 사람을 피고로 해야 한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 9.6.2. 대법원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실효시켜달라는 원고만 있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피고가 없다.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 9.6.3. 대법원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실효시켜달라는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원고만 있는 소송을 청구했던 사람을 피고로 해야 한다.

9.7. 일사부재리 원칙 배제

원고와 피고가 있는 재판은 법률주체(원고 및 피고)와 법률 목적물(재판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반복 재판을 불허한다. 그러나 원고가 없는 소송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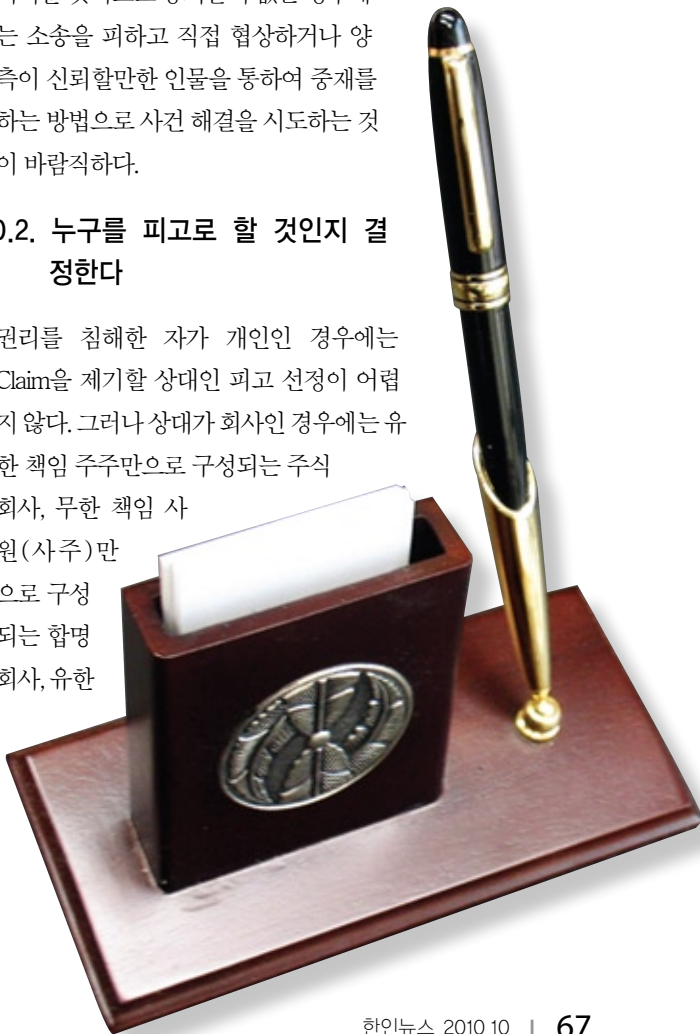
10. 피고가 있는 일반 소송 소장 등록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10.1.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집한다

상대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권리를 침해 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은 승소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승소 가능성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 상대의 계약 위반 혹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수집과, 원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수집이 필수 사항이다.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는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증거물, “예”를 들면 써베이어의 써베이 보고서 등은 증거 효과가 높다. 민사 소송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피하고 직접 협상하거나 양측이 신뢰할만한 인물을 통하여 중재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2.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권리를 침해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Claim을 제기할 상대인 피고 선정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상대가 회사인 경우에는 유한 책임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 무한 책임 사원(사주)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의 경우는 구성원의 책임 한계가 상이하므로 누구를 피고로 할 것 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며 사장으로 “A”회사를 경영하는 “B”씨가 “C”회사로부터 납품을 받고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C”회사의 대표 “D”씨는 손해배상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A”회사만 피고로 할 것인지 회사의 대표이며 결정권자인 “B”씨와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인 법적인 책임은 채무자인 “A”회사에 있으나, “A”회사의 대표인 “B”씨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C”회사는 “A”회사는 제1피고로 “A”회사의 대표인 “B”씨는 제2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사의 감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도 제3피고로 포함시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식회사법에 회사를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거나 불법행위를 범한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은 무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B”씨의 불법행위가 법정에서 증명되면 “B”씨도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도산되자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국외로 잠적해버린, 채권자 특히 납품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몇몇 제조업체들의 사건은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사후 법적 대응이 없어서 장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의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의 국외 잠적을 용납하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 혹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사법 제도를 통하여 무한 책임을 물어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에도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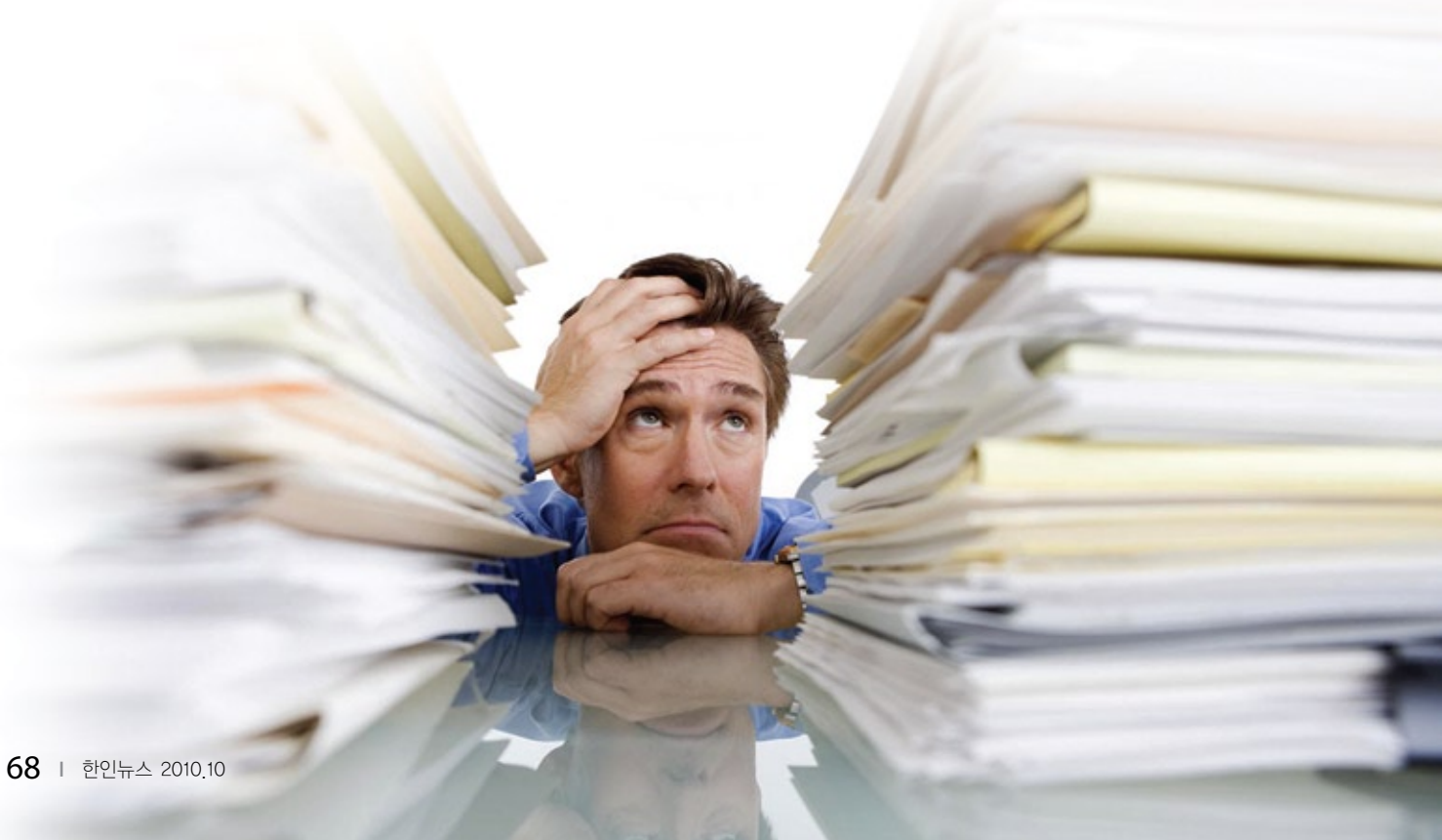
10.3.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다

소송 청구처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주소가 불명 시에는 최종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순이나,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살고 있는 피고에게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보서 송달은 인도네시아의 외무부와 상대국의 외무부와 법원을 거쳐 전달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에 출두를 명하는 소환장이 피고의 이사 혹은 주소 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 계시판 및 일간지에 공시 후 피고 없이 재판이 진행되며 원고가 승소를 하게된다.

10.4. 피고의 손해 배상 능력을 조사한다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패소한 피고가 처음부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위장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사전에 피고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을 청구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며,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 청구와 동시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Annual General Meeting 정기 총회- 회원 가입 및 갱신

9월 21일(화) 헤리티지의 전체 정기 총회가 에라스무스 하우스 (네덜란드 대사관, 021 524 1021)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9시 반에 시작되어 12시 경에, 올해는 바탁민속무용 및 노래공연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회장의 각 부문별 활동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수 등이 준비되며 많은 외국인 회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며, 헤리티지 활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존회원중에 갱신을 하지 못하신분이나 새로 회원을 가입하실 분은 헤리티지도서관에 가시면 가입이 가능하며, 회비는 연간 40만루피아입니다.

(도서관: 17th Floor, Sentral Senayan 1, 전화 : 021- 572 5870)

헤리티지 40주년 기념식 안내

10월 23일 저녁 6시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40주년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Gala Dinner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 공연이 동반되며, 대통령 영부인등 주요 인사들이 많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참가하셔서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 Kideco Jaya Agung에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도서관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Museum Tour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화요일과 셋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Language Course

박물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주는 강사가 이성래, 전정미씨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협조와 참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어 강사로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주신 김효숙씨와 유진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chool Program

지난 9월 22일에 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영덕씨 집에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초등 2학년대상으로 있을 와양발표준비를 했으며, 9월 29일과 10월 2일에도 발표준비로 모임 예정입니다. 스쿨 프로그램은 10월 5일 80여명의 JKKS 2 학년을 대상으로 와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Photo Club

지난 9월 21일 화요일에 에라스무스 하우스에서 모여 인물사진을 찍었으며, 이번 사진반 모임은 10월 12일 오후3시에 비두리아파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부탁드립니다. 신입 회원 0명 모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동회장

안연숙 0815-9741-851 / 이청민 0811-818-213





컴퓨터 고장 예방 및 응급 대처법



김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컴퓨터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응용하여 생활에 많이 활용하시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해서 오늘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컴퓨터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컴퓨터 주요 부품 고장 원인 및 예방법

1. 하드디스크 고장

컴퓨터가 작동 중일 때 강제로 전원을 끄거나 코드를 뽑으면 하드디스크가 잘 망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시스템종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응답이 없어서 강제로 전원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종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감염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제 종료보다는 바이러스 등 컴퓨터 점검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소리가 난다고 본체를 두들기는 분들 있습니다. 소리의 이유는 쿨러 소음 때문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본체를 두들기면 웬만큼 조용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조용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충격에 의해서 하드디스크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쿨러를 교체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드디스크는 컴퓨터가 작동 중이지 않아도 본체에 충격을 주면 망가질 수 있으니 본체를 옮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2. 비디오카드 고장

비디오카드에 붙은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콘덴서의 충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칩셋(GPU)의 온도가 상승하여 칩셋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칩셋 자체의 불량보다는 칩셋과 기판 사이의 접촉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니터가 정상인 상태일 때 화면에 줄이 생기거나 글자가 깨져 보이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접촉불량 증상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쿨러 소음이 점차 커지다가, 어느 순간 조용합니다. 조용해졌다는 것은 쿨러가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콘덴서 불량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화면 움직임이 둔하거나 동영상이나 게임 실행 시 어느 시점에서 컴퓨터 꺼지는 증상이 보이면 비디오 카드에 있는 콘덴서가 고장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교체가 정답..

3. CPU 쿨러 고장

CPU는 온도가 어느 지점 이상 상승하면 작동을 중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고장이 드문 편이지만, CPU 쿨러는 그렇기가 못합니다. 오히려 CPU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쿨러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 일정 속도를 벗어나게 되면 쿨러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음도 엄청 커지게 되겠지요.

CPU 과열 원인은 먼지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파워 서플라이나 메인보드 전원 부 상태 불량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CPU 쿨러는 CPU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소음 발생이나 고장 발생이 잦아지게 됩니다. CPU 쿨러에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바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방열 판 청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4. 메인보드 고장

메인보드 콘덴서가 터져있을 때 파워 서플라이를 뜯어보면 대부분 콘덴서가 터진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터진 부분이 좀더 까만 색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지 못한 탓에

메인보드 콘덴서들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스템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콘덴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충방전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할 때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게 됩니다. 콘덴서 한 개가 작동이 중지되면 메인보드 전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비정상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파워 서플라이 고장

고장 난 파워 서플라이는 대부분 콘덴서가 터지거나 정류회로 쪽의 부품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콘덴서 불량은 저렴한 부품 사용이나 파워 서플라이 내부 먼지, 쿨러 성능 저하로 인한 과열이 원인입니다. 애초에 사용한 부품이 문제일 경우는 사용자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먼지가 쌓이거나 쿨러 소음이 심해질 때 빠른 조치를 취하면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 서플라이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파워 서플라이 고장을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에 부품들도 망가지게 됩니다. 메인보드, 비디오카드, 하드디스크, CPU, 메모리 등 모든 부품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최대한 구성하려고 하는 시스템 성능에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먹통 시 응급 조치법

1.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일 때.

이때는 우선 인터넷 모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컴퓨터와 모뎀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뎀과 컴퓨터의 케이블 연결 부위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고 5분 정도 후에 모뎀을 먼저 켭니다. 그리고 모뎀의 리드 불의 깜박임이 고정되면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이제 다시 인터넷을 사용해 봅니다.

이렇게 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연락 후 A/S를 받아야 합니다.

2. 컴퓨터에서 뽁뽁 소리가 나면서 모니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

이렇게 소리가 날 때는 대부분 비디오 카드나 메모리가 접촉 불량일 때 나타납니다. 증상 별로는 ▲뽁뽁 짧게 여러 번 날 때는 비디오 카드, ▲뽁~익 뽁~익 길게 날 때는 메모리 접촉 불량 ▲비디오 카드나 메모리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뽁뽁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면 메인보드 또는 CPU 불량.

이럴 때는 일단 컴퓨터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열고 비디오 카드와 메모리를 슬롯에서 뽑니다. 다음은 지우개로 각각의 메인보드 슬롯에 접촉하는 부위를 깨끗이 닦아 줍니다. 이제 다시 슬롯에 삽입하고 전원을 켜봅니다. 정상 작동하면 그냥 사용하고, 만약 같은 증상이면 비디오카드나 메모리가 고장 난 겁니다. 교체하셔야 하는 상황

3. KEY BOARD ERROR 그리고는 깜박거리고 작동 불가.

키보드를 메인보드에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키보드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컴퓨터를 옮기고 키보드를 끼울 때 핀이 구부러지거나 끊어졌을 때도 나타납니다.

4. Operating System not found

이 메시지는 운영체제로 부팅을 해야 하는데 부팅에 필요한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원인은 ▲하드디스크 데이터 케이블이 메인보드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하드 디스크의 부팅 파일이 손상되었을 때.

사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때는 컴퓨터 뚜껑을 열고 데이터 케이블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을 때는 주변에 컴퓨터 잘 하시는 친구분이나 컴퓨터 회사에 요청해서서 파일을 복구하거나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5. 갑자기 컴퓨터를 켰는데 전원이 안 켜지고 먹통일 때

이 증상은 파워 서플라이 고장이나 메인보드 고장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A/S 부르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이 때 해볼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전원 케이블을 완전히 뺀 후 뚜껑을 열고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원 커넥터(컴퓨터 내부를 자세히 보시면 흰색의 조금은 길게 생긴 플라스틱 컨넥트가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를 뺐다가 다시 꽂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렇게 해서 전원이 켜지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더라도 파워 서플라이나 메인보드 쪽 문제가 있는 상태이니 꼭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도중에 갑자기 파란 화면이 뜨면서 에러가 날 때는 비디오 카드의 쿨러를 점검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바꿔주고, 메모리 접촉 부위를 잘 닦아서 끼워주면 정상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컴퓨터 응급 처치를 실행할 때는 컴퓨터 뒤쪽의 전원 케이블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해야 하며, 컴퓨터 내부의 부품을 만질 때는 컴퓨터 케이스나 금속 물질에 손을 접촉하여 정전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정전기로 인한 가벼운(?) 쇼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컴퓨터. 참 편리하긴 한데 고장 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요. 고장 원인도 다양하고 A/S 요청하면 무슨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리도 많은지..... 결국은 같아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이럴 때 열 받아서 맘 고생 몸 고생하시는 교민 여러분... 조금 더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서 본인의 건강과, 가계재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부인회, It's Korea 두 번째 책자 펴내

제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회장 홍미숙)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안내서 It's Korea 그 두 번째 단행본을 발간했다. 2007년 첫 번째 책자인 It's Korea 와 같이 교민기업들의 후원으로 펴내게 된 금번 책자는 후원사 광고를 비롯, 한국 개관, G-20 정상회담 및 녹색성장 소개, 한국 드라마, 영화, 여성 아이돌 그룹을 포함한 한류에 대한 소개 및 스포츠, 한식, 한국음식 요리법 등 알찬 내용으로 꾸몄다. 또한 수도권 서울 관광을 위한 지도 및 유명쇼핑지역 등을 소개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의 편의를 도왔다.

홍미숙 부인회 회장은 발간을 약속한 날짜를 오래 넘긴 점에 대해 광고후원사에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믿고 협조해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야로슬라블 세계정책 포럼과 상생의 한-러 관계 모색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올해는 한-러 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계외교 전략'과 부합하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유기적 협조, 총체적 위기관리,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북한의 비핵화 등을 포함해, 러시아는 중요한 협력 국가로 부상했다. 그 결과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는 한국이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제외하고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경제와 안보, 국가위상 측면에서 몇 가지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경제협력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방문 첫 날인 9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에너지, 자원, 조선을 포함해 현지 유력경제인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추진과 에너지 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실질적인 양국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오는 2015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750만 톤 도입과 관련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가설 여부와 LNG 형태의 선박으로 도입할 지 여부를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과 관련 러시아의 북한 설득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안보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국영TV 인터뷰에서 '제2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는 북한의 협력이 전적으로 필요 사안이며,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통해 정상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러시아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감사하다'로 답변했고, 특히 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협력할 것을 표명했다. 최

근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 규명에 대한 러시아 정부와 이견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양국 정부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여겨진다. 아울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어지는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그는 '남북문제의 당사자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와 크레믈린의 외교안보 관계자 사이의 수시 전략 대화 채널 구축에 동의했다.

계속해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260km 떨어진 유서 깊은 항구도시 야로슬라블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20여 개국의 정부, 학계 고위인사 및 러시아 각계 유력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주요국 지도자와 석학들이 참석해 현대국가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러시아는 이 포럼을 정치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했다. 러시아의 국정과제인 경제 현대화 및 지식기반 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협력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성공적인 원동력은 개방과 자유의 원칙, 교육이었으며 '공정한 사회' 건설은 한국의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 구축 등을 설명했다. 따라서 기조연설은 양국 관계 증진 및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위상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오는 11월 초 G20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방한 예정인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이 대통령은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계속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 계획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심화 및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 정부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협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즉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상생'의 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주력해야 할 시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쟁과 > 상생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 / 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NDO

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일링 서비스를 받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 사회에서 책 읽을 시간 내기가 녹녹치 않아 주로 인터넷글이나 쪽편지를 자주 읽게 됩니다.

얼마전 받은 쪽글에 중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경쟁과 상생의 차이:

경쟁은 남을 이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인 경쟁자를 이기고 나면 그 이상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을 도모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워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이념으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조금의 희생이 따를지라도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내가 상처 받지 않으려고 남에게 상처주는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어떤걸 보고 배울까 혹 나도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찌지 라는 생각이 자주들곤 합니다.

가족, 친지, 동료들에게 경쟁자가 되지 말고 상생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는건 어떨까요?



바람불어 좋은날.
Manisnya Hidup

집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대안 엄마, 과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꼬이고 엮인 가족사, 엄마이기 때문에 모든걸 안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대안 엄마는



Mereka membuatku *sekarat*.
재네들 때문에 내가 내 명에 못 살아.

한숨을 내 뱉습니다. **Sekarat** 단말마의 고통을 또는 아주 위급한 상황과 임종,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을 표현합니다. (Dalam keadaan saat menjelang kematian)

예)

Orang yang mengalami kecelakaan itu, sekarat ketika dibawa ke rumah sakit.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왔을때 이미 중태(생사를 넘나드는 상태)였다.

자수성가한 상준 엄마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걸 잃었지만, 아직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뿐더러 만세에 대한 편견도 버리지 못하고 있자 오복 아버지가 한마디 거듭니다.



Wah, kau sangat berpendirian **teguh**.

정말 대쪽 같으시네요.

대쪽 같다(대나무의 끝은 잘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대나무를 곧은 성품 굽히지 않는 절개를 갖춘 사람을 비유 할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Teguh: 확고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etap tidak berubah)

예)

Teguhkan(Kuatkan) hati : 마음을 강하게 먹다.

- **Teguhkan(Kuatkan) hati** dalam menjalani cobaan ini.

이번 시험을 치르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어라.

Teguh dengan kesetiaan: 실신실 마음을 더욱 확고히 강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확고 부동한 충성, 일편단심을 나타냅니다.

- Kau harus tetap **teguh** dengan kesetiaanmu.

당신의 신의를 지키세요. (저버리지 마세요)

한인뉴스후원사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15일 창간 이후 교민사회의 길라잡이로서 한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를 맞아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 후원사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후원방법 및 후원특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직접 귀사를 찾아 뵙거나 이메일을 통해 후원안내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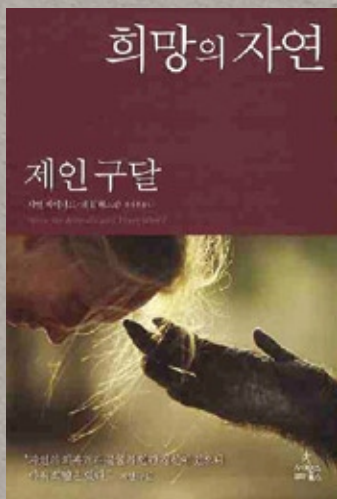
좋은 여행 나쁜 여행 이상한 여행

- 세계적인 론리플래닛 여행작가들의 세상에서 최고로 재미있는 여행이야기

저자 돈 조지 | 역자 이병렬 | 출판사 컬처그라퍼

유머 감각이야말로 여행길은 물론, 인생길에 꼭 필요한 동반자다!

30여 년간 세계적 여행 가이드북 <론리플래닛>의 글로벌 여행 담당 에디터로 활약해 온 여행작가 돈 조지가 엮은 『좋은 여행, 나쁜 여행, 이상한 여행』. 유명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사이먼 윈체스터, 세계적 여행작가이자 역사가 잰 모리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진가 제프 그린월드, 그리고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예스맨>의 원작자 대니 윌리스 등 31인의 여행작가가 자신이 겪은 좋은 여행, 나쁜 여행, 이상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도서관의 화장실에 갇힌 이야기, 납치범으로부터 여행 가이드를 받은 이야기, 홈리스가 되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펜 한 자루를 양 한 마리와 바꾼 이야기 등 여행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험과 사건을 유머러스하게 고백하고 있다.



희망의 자연

저자 제인 구달, 세인 메이너드, 게일 허드슨 | 역자 김지선 |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전세계 수많은 제인 구달에게서 듣는 희망의 메시지

스물여섯 살의 젊은 나이에 위험천만의 아프리카 열대 우림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 침팬지 연구에 평생을 바친 제인 구달의 신작 『희망의 자연』. 이 책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들을 되살리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제인 구달 박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멸종의 가파른 비탈에서 있는 동식물들을 살리기 위해, 지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전화와 이메일로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달달한 인생

저자 지현근 | 출판사 생각의나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보다 위대한 예술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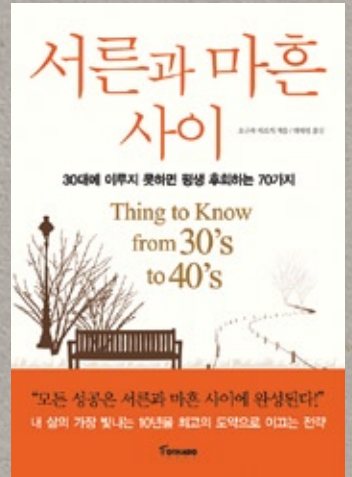
현대 미술의 성지 미국 뉴욕을 뒤흔든 세계적 카툰니스트 지현근의 『달달한 인생』. 초등학교 1학년 때 척추결핵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40여 년간 두 평 반뿐인 골방에서 바위처럼 살면서 카툰을 통해 전세계에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온 저자의 카툰 에세이다. ‘달’을 보며 꿈꾸었던 달달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을 꿈꾼 저자가 카툰으로 이룬 골방의 기적을 만끽하게 된다. 우리에게 인생을 달달하게 할 1%를 찾아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응원을 보내고 있다. 카툰뿐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도 풍부하게 담아냈다.

서른과 마흔 사이 - 30대에 이루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70가지

저자 오구라 히로시 | 역자 박혜령 | 출판사 토네이도

30대를 후회없이 맞이하고 보내자!

일본 젊은 비즈니스맨에게 가장 사랑받는 리더십 전문가 오구라 히로시의 『서른과 마흔 사이』. 모든 성공은 서른과 마흔 사이에서 완성됨을 일깨워주면서, 30대에 이루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70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3만 명에 이르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맨을 만나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정리한 것이다. 배움의 시절인 20대를 지나 본격적으로 인생이 펼쳐지는 30대를 후회없이 맞이하고 보내는 명쾌한 준비와 전략, 그리고 해답을 얻게 된다. 특히 스스로가 인생의 주체로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당하게 헤쳐 나가는 프로페셔널을 완성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생각 버리기 연습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 | 역자 유유히 | 출판사 21세기북스

생각병을 치유하다!

일본 쓰키요미지 주지 스님으로 일반인을 위한 좌선 지도를 해온 코이케 류노스케의 『생각 버리기 연습』. 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풍조를 뒤엎을 '휴뇌법'을 공개한다. '생각 버리기 연습'을 통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잡념의 정체를 밝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말하기'부터 '기르기'까지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특히 생각하지 않고 오감으로 느낌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도록 이끌고 있다. 뇌를 쉬게 할 뿐 아니라, 충전하여 날카로움과 명철함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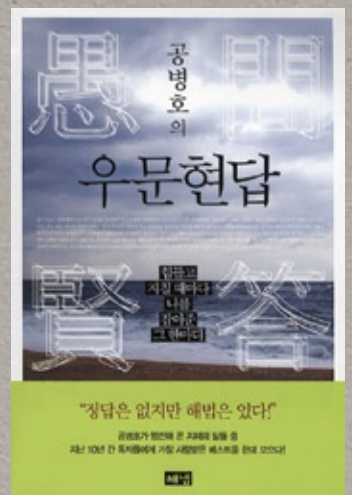


공병호의 우문현답 -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잡아준 그 한마디

저자 공병호 | 출판사 해냄출판사

공병호가 엄선했던 지혜의 문장으로 인생의 물음들을 풀어내다!

대한민국 원조 독서광, 열정적인 블로거이자 가장 활발한 트위터러 중 한 명인 공병호 박사가 힘들 때마다 밀줄 그으며 마음에 새긴 지혜의 말 150선 『공병호의 우문현답』. 이 책은 공병호 박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10년간 게재했던 책 속 한 구절, 감동을 받은 한마디의 명언들 중 가장 사랑받았던 글귀를 모은 것이다. 세계적인 예술가, CEO, 자기계발 전문가에서부터 역경을 딛고 일어난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명언과 책 속 한 구절을 선보인다. 여기에 자신이 받은 감동과 삶에 대한 성찰을 더해 독자만의 현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시라노; 연애조작단

100% 성공률에 도전하는 '시라노; 연애조작단'이
예측불허 의뢰인과 타깃녀를 만났다!

'시라노 에이전시'는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의 사랑을 대신 이루어주는 연애조작단이다. 때로는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비밀 작전 수행처럼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의뢰인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연애 에이전시. 그들의 신조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안 한다' 이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펙은 최고이나 연애는 팡인 2% 부족한 의뢰인 상용(최다니엘 분)이 에이전시 대표인 병훈(엄태웅 분)과 그의 작전요원 민영(박신혜 분)을 찾아온다.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랑스런 외모의 희중(이민정 분). 그러나 그녀의 프로필을 본 순간, 병훈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Legend of the Guardians:

The Owls of Ga'Hoole / 가디언의 전설

하늘을 지배한 위대한 전설!
올빼미 전사들이 날아오른다!

인간들이 모르는 하늘 위 세상, 왕국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순수 혈통과 그들로부터 올빼미 세계를 보호하려는 가디언과의 대전투에 대한 위대한 전설이 있었다. 어린 소렌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위대한 가홀의 나무'에 은둔한 채 왕국에 위기가 닥쳤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 속 가디언들을 굳게 믿으며 언젠가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할 날을 꿈꾼다.

어느 날, 소렌을 질투한 형 클러드 때문에 비행연습 중 나무 위에서 떨어진 두 형제는 순수 혈통에게 납치당해 그들의 손아귀에 붙잡힌다. 다른 올빼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소렌은 그들과 함께 순수 혈통을 물리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전설의 가디언을 찾아 '위대한 가홀의 나무'가 있다는 바다 너머 안개 속 세상을 향해 날아간다. 전설의 가디언들이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자유를 위해, 꿈을 위해 소렌은 믿음의 날개 짓을 멈추지 않는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YUNDAI
TRUCK & BUS**



More than a game, it's a way of life.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

 **HYUNDAI**